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NHK와 KBS의
어린이 뉴스프로그램 비교 연구

濟州大學校 行政大學院

言論弘報學科

姜 東 希

2011年 2月

NHK와 KBS의 어린이 뉴스프로그램 비교 연구

指導教授 崔 洛 辰

姜 東 希

이 論文을 言論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1年 2月

姜東希의 言論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인)

委 員 _____ (인)

委 員 _____ (인)

濟州大學校 行政大學院

2011年 2月

<목 차>

국문 요약

| | |
|-------------------------------|----|
| 제1장. 서 론 | 1 |
|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 1 |
| 제2장. 선행연구 고찰 | 3 |
| 제3장.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11 |
| 1. 연구문제 | 12 |
| 2. 연구방법 | 12 |
| 1) 분석대상 | 13 |
| 2) 분석기간 | 14 |
| 3) 분석방법 | 15 |
| 제4장. 연구결과 | 17 |
| 1. <연구문제 1>의 분석결과 | 17 |
| 2. <연구문제 2>의 NHK사례 분석결과 | 27 |
| 3. <연구문제 2>의 KBS사례 분석결과 | 34 |
| 4. <연구문제 3>의 분석결과 | 41 |
| 5. <연구문제 4>의 분석결과 | 44 |
| 제5장. 결론 및 제언 | 49 |
| 1. 요약 및 결론 | 49 |
| 2. 연구한계 및 제언 | 53 |

| | |
|-------------------------------------|----|
| 참고문헌 | 55 |
| Abstract | 57 |
| <부록> | 59 |
| - 한국의 <KBS 어린이 뉴스탐험 1회분 방송분> | 59 |
| - 일본의 <NHK 주간 어린이 뉴스 1회분 방송분> | 67 |



<표 차례>

<표1> 분석대상으로 선정한 한·일 어린이 뉴스 동영상 방송분14
<표2> 한·일 어린이 뉴스프로그램 주제 비교44



국문 요약

NHK와 KBS의 어린이 뉴스프로그램 비교 연구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어린이 뉴스프로그램에 관하여 비교 분석한 연구이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외국의 어린이 뉴스프로그램에서 방송되는 내용을 우리나라 방송사의 어린이 뉴스프로그램과 직접 비교하여 분석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 동안 어린이 뉴스프로그램인 『KBS 어린이 뉴스탐험』과 『MBC 로그인 싱싱뉴스』가 제작되어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으나, 시청률의 한계로 인해 오랜 기간 방송되지 못하고 종영되고 말았다. 현재 우리 어린이들은 일반 뉴스프로그램을 통하여 이 세상에 돌아가는 소식을 전해 듣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연구문제를 첫째, 어린이 뉴스프로그램의 코너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이야기 진행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둘째, 어린이 뉴스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설명보조 도구(수단)에는 어떠한 종류들이 있는가? 셋째, 어린이 뉴스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인물의 유형과 역할은 무엇인가? 넷째, 어린이 뉴스프로그램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주제는 방송사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로 설정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KBS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동영상 내용으로 텍스트를 만들었고, 일본의 경우는 NHK에서 방송하는 내용을 현지 녹화하여 번역하였고, 이것을 한글 번역본으로 제작하여 논문을 진행하였다.

한·일 어린이 뉴스프로그램에 관해 연구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일 뉴스프로그램의 코너 구성 및 이야기 진행방식에서 차이가 있었다.

코너 구성을 살펴보면, 일본 뉴스프로그램의 코너는 4~5개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뉴스프로그램은 3개의 코너 구성으로 단조로운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

진행방식에서 일본의 경우는 어린이들의 보내온 엽서 질문내용에 의하여 프로그램이 기획·제작되고 있었고, 5인 가족으로 구성된 고정 진행자들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방송·제작사의 기획의도에 의하여 주제가 선정되고 있었고, 남·여 아나운서가 고정 진행자에 의하여 진행하는 방식으로 하였다.

둘째, 내용설명 보조도구의 다양성과 사용빈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다. 일본의 뉴스프로그램은 다양한 설명보조 도구들을 진행자가 내용설명에 직접 활용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이해를 높이고 있었다. 우리의 뉴스프로그램은 설명보조 도구들이 다양하지 않았고, 내용설명에 직접 활용하지 않고 있었으며, 주로 아나운서의 설명을 보완하는 보조 자료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었다.

셋째, 등장인물의 유형과 그 역할에서 차이가 있었다. 일본의 뉴스프로그램은 5인 가족구성원들이 역할 분담에 의하여 실제 가족 같은 자연스러운 분위기로 진행되고 있었다. 반면, 우리나라의 뉴스프로그램은 남·여 아나운서가 진행자하여 진행하는 일반적인 형태로서 방송제작사의 기획의도가 잘 전달되고 있었고, 일반 뉴스와 같은 딱딱한 이미지가 그대로 전달되고 있었다.

넷째, 일본의 뉴스프로그램인 경우는 국내뉴스는 물론 국제적으로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들도 다루고 있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뉴스프로그램은 주로 국내뉴스 중 어린이와 관련된 내용이 많았다. 하지만 애국심 고취와 같은 우리나라와 연관된 국제뉴스도 다루고 있었다.

이상에서 한·일 어린이 뉴스프로그램에 대하여 차이점과 특징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어린이 뉴스프로그램에 대한 논의와 개선점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는 기회 마련과 아울러 향후에 우리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고 눈높이에 적합한 새로운 어린이 뉴스프로그램 제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며, 본 연구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제1장.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뉴미디어 시대의 도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TV라는 매체가 아직까지도 매스 미디어 중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진 매체라는 것에 반론을 제기할 사람들은 없다(방송위원회, 1996). 이런 TV 매체는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세계를 보는 창”이라고 할 만큼 아이들이 가장 먼저 세계를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정보를 습득하고 성격이 형성된다. 특히 그 시청대상 층이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성장 발달 단계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있어서 TV매체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겠다(이정우, 1999).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TV가 어린이들에게 미치는 다양한 영향에 관한 수많은 논의가 지금도 계속되어 지고 있다. TV매체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관심은 TV라는 매체 자체가 시작된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것으로서 사회적 관심뿐만 아니라 학문적 관심의 역사도 상당히 깊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1960년대에 TV가 본격적인 가족 매체로 자리잡게 되면서 TV가 가정생활과 가족관계 또한 사회현상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TV매체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보고 일부 학자들은 부정적인 시각에서 다루기도 하지만,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의 실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하고도 강력한 정보원으로서의 역할과 우리의 의사결정에 보이지 않는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하겠다.

한편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성장하는 동안에 각종 매스 미디어가 쏟아내는 환경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다. 더욱이 어린이들에게 있어서 TV매체에 노출되고 있는 시간은 점차 늘어나고만 있다. 학부모들의 시청지도에도 불구하고 생활환경 속에서 어린이들은 성인 중심의 프로그램으로부터 쏟아내는 선정성과 폭력성 등의 각종 정보들을 여과 장치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하게 되며, 매스 미디어를 통한 어린이들에게 미디어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논문은 매스 미디어를 통한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미디어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현재 각종 매스 미디어들이 쏟아내는 각종 정보들이 성인 중심

의 시각에서 일방적으로 보도되어 지고 있다는 데에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출발하고자 한다.

또한 지금까지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TV가 어린이에게 미치는 영향과 프로그램의 편성경향 및 전략,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김차근, 2003; 이정우, 1999; 채수영, 2006; 한국방송개발원, 1996). 그러나 외국의 어린이 뉴스프로그램에서 방송되는 내용을 우리나라 방송사의 어린이 뉴스프로그램과 직접 비교 분석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어린이 뉴스프로그램인 『KBS 어린이 뉴스탐험』과 『MBC 로그인 싱싱뉴스』가 제작·방영되어 한동안 대중매체를 통한 매스미디어 교육 차원의 다양한 정보를 어린이 시청자들에게 제공되고 있었다. 이러한 실험적 시도마저도 시청률 지상주의와 광고수입 하락이라는 상업주의 논리에 의하여 이미 종영되어 버렸다. 미래의 주역으로서 앞으로 이 시대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우리 어린이들이 성인대상 층의 시각에서 만들어 낸 일반 뉴스프로그램을 통하여 이 세상을 이해하여야 하는 현실을 더 이상 지켜볼 수는 없다.

이런 현실과는 대조적으로 이웃 나라인 일본에서는 1994년부터 TV매체를 통한 미디어교육의 일환으로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어린이 뉴스프로그램인 「NHK 주간 어린이 뉴스」가 지금까지도 방영되고 있다.

여기서 일본의 「NHK 주간 어린이 뉴스」 프로그램을 비교 연구해보고자 하는 것은 어린이를 생각하는 뉴스프로그램이라는 점과 일반 뉴스와 비교하려는 우리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고, 같은 어린이 뉴스프로그램 대상으로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비교연구 이점 외에도 한·일 두 나라의 어린이 뉴스프로그램에 대한 차이점과 특징도 살펴볼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어린이 뉴스프로그램에 대한 논의와 개선점을 고찰할 수 있는 기회 마련과 아울러 향후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고 눈높이에 적합한 새로운 어린이 뉴스프로그램의 제작에 일조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제2장. 선행연구 고찰

우리들에게 있어서 뉴스란 시사성이 있는 정보를 말하는 것으로서 버킹엄은 뉴스를 보는 것 자체가 정보를 찾는 행위이고, 시청자들의 사건에 대한 판단과 기억을 도와 줄 수 있는 ‘인식적 이해’라고 하였다(함미연, 2006). 이처럼 뉴스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이자, 정보의 공급원으로서 하루에도 수많은 취사선택의 갈림길에서 보이지 않는 힘을 행사함으로써, 우리의 일상생활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데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어린이는 존재하고 있으나, 어린이 뉴스가 없다는 데에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이 우리나라에서 어린이 뉴스와 관련하여 부분적으로 언급된 자료는 있으나, 본격적으로 이에 관하여 연구된 논문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미래의 주역이 될 어린이들도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이론적으로는 이야기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알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고, 상실되는 처지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본 논문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어린이다운 뉴스프로그램이란 어떤 것인지를 논의해 보기에 앞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어린이 프로그램에 대하여 논의되어 왔던 선행연구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연구 분야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도 많은 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로써 대표적인 연구자료는 아래와 같다.

김기태(2009년)는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 실태와 논의’에서 어린이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는 매우 부족하며 제한된 연구자들의 논의에만 그치고 있다고 하였다. 이런 연구 결과마저도 제대로 수용하려는 의지가 없어 어린이 프로그램 자체가 고사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보았다. TV나 미디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는 어린이는 보호해 주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며, 방송사도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달라져야 한다고 하였다. 지난 5년간 지상파 3사의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해 본 결과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비율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어린이들이 볼 수 없는 시간대에 편성되어 있으며, 애니메이션을 중심으로 한 특정 장르 편중 현상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프로그램의 질적인 문제도 해결되지 못한 채, 성인프로그램으로 내몰고 있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유홍식 외(2008)는 케이블·위성방송의 13개 어린이 방송채널, 5개 지상파 방송채널의 영유아 어린이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편성현황을 분석하였는데,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량은 1주일에 1,743시간, 1일 평균 249시간으로 나타났고, 지상파채널의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비율은 4.15%(EBS 포함 시 11.37%)를 보였다고 하였다. 애니메이션의 편성비중은 85.36%(지상파채널: 52.6% , 케이블·위성채널: 87.44%)을 보였고, 해외수입 비중은 미국이 31.6%, 일본이 26.3%로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분석 결과에서는 <사회적 스킬>을 가장 많이 다루고 있고, <청각스킬>, <자기감각>, <신체적 활동> 순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기존의 폭력적 내용중심의 분석에서 벗어나서 발달단계별 분류에 따른 내용분석을 탐색적으로 시도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는 연구였다.

방송위원회(1996)는 어린이 프로그램편성의 개선점 및 바람직한 정책방향에 대한 연구에서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의 다양화와 자체제작 프로그램의 적극 개방 및 수입원의 다변화, 정보·교육성 강화로 수준 높은 프로그램의 제작과 편성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또한 제도적 측면에서는 정기적인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 정책의 마련과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을 위한 재정 지원책 마련, 편성·제작을 위한 전문 인력 강화, 사회 각계의 관심 환기가 요구되어진다고 하였다.

이정우(1999)는 어린이대상 프로그램의 연구 분석에서 어린이 프로그램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이는 방송사의 일방적인 편성에 기인하며, 방송사는 어린이 프로그램의 개발, 제작과 함께 방송마케팅의 다각화 전략을 모색하며,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일정비율을 방송사나 혹은 독립 프로덕션이 제작한 것을 방송하게 하는 방송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어린이 프로그램의 편성은 '의제설정' 기능의 발단이 되고, 편성에서 지향하는 설득적인 목표는 성인보다는 발달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더 중요하다고 분석하였다.

채수영(2006)은 2000년~2005년까지 지상파 방송을 대상으로 시청률 변화를 조사한 결과 어린이들은 지상파 TV에서 케이블 TV로 시청행태가 변화하고 있는데, 이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등 선호 장르1)가 집중 편성되어 있는 케이블

TV로 어린이들이 이탈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전체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시간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으며, 전체 시청자 중 어린이들이 차지하는 비율 감소와 시청률이 하락하면서 어린이 프로그램의 편성시간이 감소하고, 이는 다시 어린이 시청률 하락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한국방송개발원(1996)은 영국과 프랑스, 미국, 영국, 일본, 독일의 대표적인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현황과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선진국은 다양한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이 방송되고 있었으며, 특히 정보 프로그램에 많은 제작비를 투자하여 어린이들의 이해를 돕고 교육적인 면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이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에 관한 연구에서는 어린이 프로그램의 편성시간은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이것은 시청률 하락으로 이어지고 다시 어린이 프로그램의 편성시간 감소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선진국의 사례에서 연구되어진 바와 같이 수준 높은 교양정보프로그램 제작 및 편성의 다양화와 함께 방송제작사의 사회적 책임성이 요구되며, 제도적인 차원에서는 지원책 마련 등 사회 각계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어린이·청소년 보호 방송정책에 대한 연구도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논의가 진행되어지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이며, 이와 관련된 연구로는 아래와 같다.

김기태(2009)는 어린이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기구나, 쿼터제 도입에 관한 연구, 방송사마다 어린이 프로그램 제작팀 구성과 자체적인 전문 심의기구 설치 및 어린이 시청자들과 소통의 창구 마련 등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어린이 프로그램 전문 프로덕션 시스템 도입과 어린이들의 시기적 특성들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정서를 이루고 이들에게 최대한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호영·윤성옥(2010)은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에서 어린이·청소년 보호 방송 규제의 원칙을 수립할 것과 보호에 있어 매체별로 차별화된 정책 마련 및 의무편성제도의 도입을 제기하였다. 또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며, TIE(Television In Education)²⁾등을 추진하는 것도 방안이라고 하였다.

1) 방송위원회(2007)의 프로그램 분류 및 구체적 장르의 내용에 따르면, 프로그램 분야에는 크게 보도, 교양, 오락으로 분류되며, 보도에는 뉴스와 시사보도, 교양에는 다큐멘터리, 생활정보, 토론, 교육·문화·예술로 나뉘며, 오락에는 애니메이션, 드라마, 버라이어티쇼, 음악 쇼, 퀴즈와 게임쇼, 인포테인먼트, 영화, 코미디, 스포츠로 분류하였다. 방송위원회, 2007년 지상파 주요 방송 내용분석 결과

방송통신위원회(2008)는 청소년에게 TV매체는 사회화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았다. 독일과, 일본, 영국의 청소년 미디어 보호체계에서 독일은 '규제된 자율규제'를 표방하며, 일본은 1990년 이전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조례가 방송을 제외한 대부분의 미디어를 규제해 왔고, 1990년 이후에는 실질적인 법안이 개정되어 왔다. 영국은 <오프콤>이라는 콘텐츠위원회를 두어서 방송사의 공공서비스 가치 테스트를 담당토록 하고 있다.

홍석경(1996)은 한국 공영방송의 어린이 프로그램 개선을 위해서는 어린이들을 저질 프로그램으로부터 보호하는 제도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선진국들의 어린이 프로그램의 형식은 드라마, 뉴스, 초등학생용 구성 프로그램, 중학생용 버라이어티 등 다양한 형식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애니메이션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어린이 프로그램에 대한 시각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한상균·이정환(2010)은 지상파 방송사의 어린이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의 시청방식의 변화 및 뉴미디어 플랫폼의 등장에 기인한 낮은 시청률과 광고수입의 하락으로 홀대 받고 있다고 하였다. 어린이 프로그램 제작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시장규모의 확대와 유통구조의 개선, 이를 위한 장기적이고 양질의 투자 재원조달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KBS의 <후토스>의 성공은 방송사 중심의 제작위원회방식의 도입을 통해 대외적 신뢰도를 갖출 수 있었기 때문으로서, 이는 향후 프로그램 제작산업 활성화에도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하였다.

홍석경(1996)은 세계 어린이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경향은 TV시청 시간은 감소 경향에 있고, TV의 부정적 영향에서 보호하려는 법적·제도적 장치로 구체화되어가는 경향이 있으며, 어린이 드라마나 뉴스 프로그램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어린이 프로그램의 전문화가 진행되고 있고, 전문 어린이 채널의 증가와 더불어 국제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각국의 공영채널들은 공영성을 구현하기 위하여 문화정책, 교육정책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일본인 경우는 공영 방송사의 철저한 공영정신과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 투자정책이 제도적 공백을 만회하고 있었고, 내용면에서는 인간적인 가치를 고양하고 정서를 함양할 수 있는 국제협작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였다.

2) TIE는 NIE(Newspaper In Education)와 유사한 개념으로 방송사업자에게 어린이·청소년대상 쌍방향 콘텐츠 수익모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이호영·윤성욱(2010)제인용.

한국방송개발원(1996)은 국내의 어린이 대상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개발은 상당히 미진한 상황에 있고, 편성 현황은 비현실적이며, 부족하다고 보았다. 특히 어린이 뉴스 등 정보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함에도 낮은 시청률, 제작비 부족으로 기피되고 있으나, 선진국에서는 오히려 높은 시청률을 확보하고 있으며,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하였다. 그 대안 방법으로 어린이 뉴스, 토크쇼 등 정보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외국의 다양한 정보 프로그램 연구를 통하여 우리 어린이 TV방송의 영역을 넓힐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또한 어린이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서 만화영화를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는 나타났지만, 매일 뉴스를 시청한다는 응답도 많아서 어린이 대상 정보 프로그램의 제작이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임을 보여 주었다. 즉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에도 어린이 대상 정보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보았고, 이를 통하여 어린이들의 정보욕구를 충족시켜줌과 동시에 외국의 무분별한 만화 수입을 억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방송정책에 관한 연구결과를 정리하여 보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어린이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낮은 시청률로 인하여 광고수익의 하락과 함께 방송제작사의 편성량은 계속 감소라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 그나마 편성되어 있는 어린이 프로그램마저도 수입된 애니메이션으로서 특정 장르에 대한 편중현상은 몇 십 년째 계속 반복되고 있다.

안정임(1997)은 이를 위해서는 방송시간의 양적 조절과 어린이 정보프로그램 개발 등 프로그램 유형의 다양화를 시도하고 어린이들의 바람직한 국가관, 세계관을 심어 줄 수 있도록 국내제작 비율의 확대, 어린이가 실제로 시청가능한 시간대 편성 및 각 매체간의 시간대별 편성의 차별화 등 편성과 관련된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보았고, 제도적 차원에서는 방송사들의 어린이 프로그램 의무편성제도의 도입 및 어린이대상 교육프로그램을 일정시간 동안 방송토록 하는 방안 등도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TV매체가 생겨난 이후 가장 일찍이 논의 되어왔던 연구는 텔레비전이 어린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이다. 이와 관련된 논의로는 아래와 같은 연구자들을 들 수 있다.

한군대·하승태·서영남·조의현(2007)은 TV는 어린이들의 성장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사회화의 도구이자 교육 수단이지만, 인격형성의 시기에 노출된 TV폭

력성은 어린이들에게 악영향이 미친다고 보았다. 어린이용 교양·교육 프로그램에서는 폭력적 장면들이 나타나지 않지만, 애니메이션 장르에서 많이 나타났고, 내부제작 보다는 외부제작 프로그램에서 폭력성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단순한 물리적인 폭력 외에도 다양한 맥락적·심리적 폭력성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어린이 수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평가항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김희정(2003)은 어린이에게 소비자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소비자사회화 작용 요인으로는 가정과 학교, 대중매체를 들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TV가 어린이 문화의 핵심영역이며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텔레비전이 어린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을 요약해 보면, 어린이들은 인격형성의 아주 중요한 시기에 TV매체에 노출되어짐으로써, 폭력성, 성, 범죄 등 사회에서 야기되는 많은 문제들을 어린이들이 여과 장치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데에 심각성이 있다고 하겠다. 특히 이런 폭력성은 어린이들이 즐겨보는 수입된 애니메이션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할 때에 내부제작된 어린이용 교양·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하는 것은 어린이 프로그램에 관한 어떤 연구 분야를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사항이라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선행연구 고찰은 본 연구논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어린이 뉴스프로그램에 대한 선행연구이기도 했으나, 이 분야에 관한 선행연구가 국내에서는 너무 부족하여 연구하는 데에 많은 애로점이 있었다. 그나마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연구로는 아래와 같다.

먼저 방송위원회(2007)의 어린이 교양프로그램의 내용을 일부 분석한 자료를 보면, 먼저 「MBC 로그인 싱싱뉴스」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제작한 생활교양프로그램으로 다양한 퐁트를 통해 초등학생들의 이상은 물론 아이들의 관심사를 소개한 프로그램으로서 재미있고 이해하기 쉬운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에 의한 어린이의 뉴스를 기획·의도한다고 되어 있다.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인 「KBS 어린이 뉴스탐험」은 어린이도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알 권리가 있다는 기획의도를 가지고 사회 각 분야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뉴스와 화제로 꾸며지는 「쉬운 뉴스」와 「해설이 있는 뉴스」를 추구하며, 주요뉴스와 중요 아이템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뉴스의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고 분석하였다.

함미연(2006)은 「KBS 어린이 뉴스탐험」이 시작된 것은 우리나라 TV 역사상에 어린이 뉴스라는 새로운 장르를 소개해 준 것이며, 어린이 시청자가 발언권을 낼 수 있는 장을 제공해 준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주제별 보도시간과 비중 면에서는 뉴스보다는 다큐멘터리 형식에 가깝다고 분석하였다. 뉴스의 본래 목적인 정보전달 기능이 아니라, 교육목적인 해설에 치중하고 있어서 뉴스의 고유성을 잃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것은 뉴스 전달에서조차 주입식 교육을 강조하려는 것으로서, 뉴스 진행자를 젊은 전문 언론인에게 맡기는 방안 검토와 함께 자료화면이나 인터뷰의 비중을 늘려야한다고 지적하였다.

물론 뉴스란 대중들에게 새롭고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해 주어야 하는 것이며, 많은 알권리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하지만, 그 시청대상 층이 지적발달 단계에 있는 어린이라는 특수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어린이 뉴스를 일반 뉴스의 형식을 가지고 비교하는 기준자체가 무리일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어린이들의 지적 발달 및 인격형성의 측면을 고려한다면, 뉴스의 내용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재구성하여 어린이들이 즐겁게 시청할 수 있어야 하며, 여기에다가 교육적 효과까지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정보 제공이라는 뉴스의 본래 기능도 충실히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어린이들의 다양한 욕구가 반영되어 제작된다면, 우리 어린이들이 느끼는 만족도는 한층 높아지게 되며, 결국 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뉴스프로그램으로 정착될 것으로 본다.

지금 우리 세대가 해야 할 일은 앞으로 미래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아갈 우리 어린이들이 전 세계를 무대로 진출할 수 있도록 국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뉴스는 물론이고 국제적인 이슈들도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재구성하여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우리 어린이들도 어려운 시사뉴스들을 알아야 하는 시대에 태어났고, 전 세계의 어린이들과 경쟁해야 하는 글로벌 경쟁시대에 이미 살게 되었다. 성인대상의 일반 국내뉴스 이외에도 국제적인 이슈도 우리 어린이들이 눈높이에서 바라볼 수 있게 재구성하여 전달함으로써 바람직한 민주시민과 글로벌적인 시각을 가진 국제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적 혹은 사회적 차원에서 어린이 뉴스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어린이 뉴스프로그램에 관한 논의가 부족한 현시점에서 해외의

어린이 뉴스프로그램을 우리나라의 어린이 뉴스프로그램과 직접 비교하여 내용분석을 시도한 것으로서, 이를 계기로 하여 국내에서도 어린이 뉴스프로그램에 대한 후속 연구가 활발히 논의되었으면 한다.

향후 우리나라의 어린이 뉴스프로그램 제작과 어린이다운 뉴스프로그램의 정착을 위해서도 이러한 시도는 필요하다고 보며, 동일 조건하에서 방영되고 있는 해외의 어린이 뉴스프로그램을 우리나라의 어린이 뉴스프로그램과 직접 비교해 보는 것은 평소 우리가 생각하는 어린이 뉴스프로그램에 대한 고정적인 생각을 탈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것이며, 더 넓은 안목에서 진정한 어린이 뉴스프로그램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제3장.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TV매체를 통하여 어린이들의 시각에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는 뉴스프로그램은 없는 실정이다.

특히 오늘날 급속히 변화되고 있는 생활 속에서 대내·외적인 각종 이슈 문제들은 하루에도 홍수처럼 쏟아져만 나오고 있고, 세상 돌아가는 사회 제반 현상에 대하여 뉴스를 통하지 않고서는 세상과 소통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

하지만 대상 층이 지적발달 단계에 있는 어린이들에게는 급속히 돌아가는 세상의 다양한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뉴스프로그램이 없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이 없다는 데에 그 심각성이 있다고 하겠다. 우리 어린이들은 성인 대상의 일반뉴스들을 이해할 수 있는 지적능력도 갖추지 못한 채 선택의 여지 없이 그저 어른들을 따라서 뉴스를 지켜보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자라나는 어린이에게는 성인대상 층의 일반 뉴스가 아닌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뉴스프로그램이 제작되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 시점에서 이웃 나라인 일본의 「NHK 주간 어린이 뉴스」를 비교 연구해 보고자 하는 것은 어린이들이 보내온 질문엽서에 의하여 기획·제작되고 있다는 점과, 어린이 눈높이를 고려한 다양한 설명보조 수단들이 활용되고 있는 등 어린이를 위한 뉴스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KBS 어린이 뉴스탐험』이 방영된 적이 있었다. 그러나 2007년에 아쉽게도 종영되어 버렸다. 향후 새로운 어린이 뉴스프로그램 제작을 위해서도 현재 일본에서 방영되고 있는 「NHK 주간 어린이 뉴스」의 프로그램을 비교하여 분석해보는 것은 『KBS 어린이 뉴스탐험』의 종영 원인분석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의 어린이 뉴스프로그램을 비교하여 분석해 보고자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일본 NHK의 다양한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의 정책³⁾과 어린이 프로그램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⁴⁾에 입각하여 어린이를 위한 내실 있는 뉴스프로그램인

3) 청소년과 방송에 관한 전문가 모임이 있고, 청소년 프로그램 충실화, 방송시간대의 배려, 미디어·리터러시 향상 등 청소년의 건전한 발달을 위한 정책이다(서울YMCA, 2008).

4) 국제 교육 프로그램 시상식인 '일본상'을 수여하고 있고, 세계지의 방송기관에서 교육, 교양 프로그램의 응모를 받아, 그 작품의 내용과 교육성으로 심사하는 국제방송 콘테스트이다(서울YMCA, 2008).

「NHK 주간 어린이 뉴스」가 1994년 4월부터 제작되어 현재까지도 꾸준히 방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1. 연구문제

이에 본 논문은 일본의 「NHK 주간 어린이 뉴스」와 한국의 『KBS 어린이 뉴스탐험』 프로그램의 내용 분석을 통하여 차이점과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어린이 뉴스프로그램의 제작 방향에 많은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아래와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어린이 뉴스프로그램의 코너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이야기 진행 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연구문제 2. 어린이 뉴스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설명보조 도구(수단)로는 어떠한 종류들이 있는가?

- 모형, 그림삽화, 그래픽, 동영상, 애니메이션, P.O.P(피켓모형, 판자모형) 등 어린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도구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어린이 뉴스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인물의 유형과 역할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4. 어린이 뉴스프로그램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주제는 방송사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내용분석 방법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두 나라 어린이 뉴스프로그램의 동영상을 확보하여 방영했던 내용 그대로를 텍스트 파일로 만들었고, 그 내용을 비

교 분석함으로써 어떤 차이점과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 자료의 수집은 한국의 경우는 KBS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동영상과 방송내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일본의 경우는 NHK 방송에서 실제 방송 내용을 녹화한 것을 확보하여 한글로 번역하였다.

1) 분석대상

「NHK 주간 어린이 뉴스」와 우리나라의 「KBS 어린이 뉴스탐험」은 공영방송으로서 두 나라의 대표적인 어린이 뉴스프로그램이라는 점, 방영시간 30분 내외로 주 1회 방영되고 있는 등 비교적 같은 조건 하에서 내용 분석하기가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한·일 뉴스프로그램의 방영시간대 및 방영요일 변천사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일본의 「NHK 주간 어린이 뉴스」 프로그램은 1994년 4월 10일에 첫 방송되어 1999년 3월까지 매주 일요일 아침 08:30분~08:55분까지 방영되다가 08:57분으로 연장하여 방영되었다. 1999년 4월부터는 시간대를 오전 10:30분~11:00시까지로, 10월부터 시간대를 오전 10:05~10:35분까지 변경되어 방영되었다. 2000년 4월부터는 매주 토요일 오후 18:10~18:42분까지 요일변경과 더불어 방영시간도 32분으로 연장되어 방송되었다. 2010년 5월부터는 프로그램개편에 의해서 다시 매주 일요일 아침 시간대인 08:05분~08:35분까지 변경되기에 이르렀다. 주요 시청대상 층은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1학년까지라고 되어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KBS 어린이 뉴스탐험」의 시간대의 변천사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2001. 7. 20일에 KBS2 TV에서 매주 금요일에 17:05~17:35분까지 어린이 뉴스프로그램으로 첫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다. 2001. 11. 9일부터는 시간대가 16:30~17:00시로 변경되었고, 2002. 4. 26일부터는 17:00~17:30분까지 시간대만 변경되어 방영되다가, 2003. 6. 23일부터는 매주 월요일 17:30~18:00시까지 방영요일과 함께 방영시간대가 변경되었다. 2003. 11. 3일에는 KBS1 TV로 채널이 바뀌는 데 전환점을 맞이하였고, 시작시간도 17:20분으로 변경되었으며 방영시간도 25분으로 짧아졌다. 2005. 12. 5일부터는 17:15~17:45분으로 시간대만 변경되어 방영되었다. 결국 2007. 4. 23일(278회) 마지막 방송을 끝으로 종영되기에 이르렀다.

이상에서와 같이 한·일 뉴스프로그램은 방송개편에 의하여 시간대와 요일, 채널 등에 많은 변천을 보여 주었다.

한·일 뉴스프로그램을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아래의 표와 같이 분석대상을 선정하였다.

<표 1> 분석대상으로 선정한 한·일 어린이 뉴스프로그램 동영상 방송분

| 방송사 | 방 송 일 자 | | | |
|-----|-----------------|----------------|-----------------|-----------------|
| NHK | 2009.4.18(토) | 2009.4.25(토) | 2009.5.30(토) | 2009.6.13(토) |
| | 2009.6.20(토) | 2009.6.27(토) | 2009.7.25(토) | 2009.8.8(토) |
| KBS | 2007.2.26(271회) | 2007.3.5(272회) | 2007.3.12(273회) | 2007.3.19(274회) |
| | 2007.3.26(275회) | 2007.4.9(276회) | 2007.4.16(277회) | 2007.4.23(278회) |

이상에서와 같이 한·일 뉴스프로그램은 방송개편에 의하여 시간대와 요일, 채널 등에 많은 변천을 보여 주었다. 여기에서 본 연구가 위의 표와 같이 분석대상을 선정한 데에는 「NHK 주간 어린이 뉴스」 프로그램인 경우는 2000년 4월~2010년 4월까지 10년 동안 프로그램 개편 없이 동일한 시간대와 요일, 코너구성이 일관성 있게 진행되어 왔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기간도 이 기간에 해당되는 2009년 방송분이므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고,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어서 본 논문을 일반화시키는 데에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KBS 어린이 뉴스 탐험」 프로그램인 경우는 이미 2007년 4월 23일에 종영 방송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종영 방송일로부터 가장 최근에 방송되었던 8회분의 방송분을 가지고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분석기간

「NHK 주간 어린이 뉴스」는 2009년 4월~2009년 8월분 중에서 8회분 방송을 가지고 분석하였다. 이 기간을 선정한 이유는 일단 동영상 확보의 문제도 있었고, 2010년 5월에 프로그램이 전면 개편되어 방송시간대 뿐만 아니라 아바역 진행자를 제외한 전 진행진

이 교체되었고, 개그맨이 새롭게 등장하게 되었다. 이런 프로그램의 개편으로 기존과는 코너 구성과 내용에 많은 변화를 보였고, 진행방식도 크게 바뀌게 되었다. 오랜 기간동안 프로그램 개편 없이 같은 형태로 일관성 있게 진행되어 왔다는 점은 객관성 확보의 측면에서도 중요하고, 특히 2개월에 1회 정도 방영되는 비정기적인 코너인 「질문 펍펍」 코너가 2회나 포함되어 있어 「NHK 주간 어린이 뉴스」의 전 코너를 분석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어서 2009년도 동영상분을 가지고 분석하게 되었다.

「KBS 어린이 뉴스탐험」은 2007. 4. 23일(278회)에 이미 종영된 뉴스프로그램으로서 종영방송일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최근에 방송되었던 2007. 2. 26일(271회)까지 방송분을 분석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급변하는 이 시대에 시의성이 너무 떨어진 방송분이라면 현재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의 생각들을 대변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현실과는 동떨어진 내용으로 분석할 수 있어서 향후 우리나라의 어린이 뉴스프로그램 제작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이 퇴색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한·일 어린이 뉴스프로그램의 동영상 내용과 영상을 함께 분석하는 것으로 하였다. 분석단위(Unit of analysis)는 뉴스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뉴스 아이템으로 한정했다. 뉴스프로그램의 상호 비교 분석을 위해 뉴스프로그램의 인사말과 끝인사는 제외시켰고, 자막내용과 내용설명이 없는 영상화면도 제외시켰다.

또한 뉴스프로그램의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 현장 체험 장면에서의 일부 장면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것은 주로 현장에 있는 사람들 간의 대화내용으로서 구체적인 내용 파악이 곤란하였기 때문이다. 영어체험마을의 경우도 같은 사유로 인하여 취재시에 영어로 대화하는 부분은 제외시켰다.

본 연구를 위한 텍스트는 일본의 「NHK 주간 어린이 뉴스」 프로그램인 경우는 일본 현지에서 실제 방송한 내용을 DVD로 녹화하여, 녹화된 내용을 한글 번역본⁵⁾으로 제작하여 분석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의 「KBS 어린이 뉴스탐험」은 방송사 인

5) 연구자는 일본 후쿠이현에 거주하는 현지인에게 「NHK 주간 어린이 뉴스」 실제 방송분을 동영상으로 녹화를 의뢰하여 연구 자료를 확보하였고, 확보된 동영상을 이용하여 한국어로 번역하였으며, 번역한 내용은 한국어에 능숙한 일본인과 함께 내용을 검수하였다.

터넷 홈페이지에 제공하는 동영상을 이용하여 연구 자료를 확보하였다.⁶⁾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연구 자료를 확보하여 각 연구문제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분석방법으로 본 논문을 진행하였다.

(1) <연구문제 1>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뉴스프로그램의 코너를 정기적인 코너와 비정기적인 코너로 구분하였고, 코너의 다양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코너의 구성수를 측정하였다. 또한 이야기 전개과정을 알기 위하여 진행자와 출연자가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2) <연구문제 2>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뉴스프로그램이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활용하는 각종 설명 보조 도구(수단)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3) <연구문제 3>에 대한 분석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뉴스프로그램에 나타나는 등장인물의 유형과 직업, 특징, 뉴스프로그램에서의 역할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4) <연구문제 4>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한·일 뉴스프로그램의 각 코너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과 뉴스의 성격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뉴스의 성격은 국내뉴스와 국제뉴스로 구분하였고, 내용면에서는 애국심 고취에 관한 내용과 글로벌적인 시민의식을 키울 수 있는가를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6) 「KBS 어린이 뉴스탐험」은 방송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공하는 동영상을 김미심(의회에서 속기사로 근무경력 8년)씨에게 의뢰하여 방송된 뉴스내용 일체를 텍스트로 만들어서 연구 자료를 확보하였다.

제4장. 연구결과

1. < 연구문제 1 >에 대한 분석결과

코너1. NHK의 「세상 속 정리해본 1주일간」 과 KBS의 「뉴스가 보여요」 코너 비교

일본의 「세상 속 정리해본 1주일간」 코너는 한 주간에 일어났던 일반 뉴스 중에서 화제가 되었던 뉴스를 골라서 핀토군(캐릭터)이 사건 발생일자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소개해주며, 사건발생일이 화면에 표기되어 있으며, 어린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나 문장표현으로 재구성하였고, 방영시간은 약 4분정도이며 보통 4쪽지 정도 소개되어진다.

한편 우리나라의 「뉴스가 보여요」도 이와 비슷한 코너로서, 1주일간의 일반 뉴스 중에서 특히 어린이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거나, 화제가 된 뉴스를 골라서 아나운서가 정리해서 알려주는 코너이다. 그러나 뉴스 사건 발생일이 표시되지 않아 정확하게 한 주간의 뉴스인지는 불분명하다. 이 코너의 도입 부분에는 KBS 9시 뉴스에 보도되었던 장면을 그대로 보여 주면서 시작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진행 아나운서가 화제의 일반 뉴스를 정리하여 보도하는 형식으로 구성하고 있고, 방영시간은 3분 30초 정도이며 보통 3쪽지 정도 소개되어진다.

먼저 한일 뉴스프로그램의 첫 코너인 NHK의 「세상 속 정리해본 1주일간」 과 KBS의 「뉴스가 보여요」를 같이 비교하여 보면,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어휘선택과 내용설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경우는 일반 뉴스에서 이슈가 되었던 내용을 중심으로 어린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나 문장표현으로 재구성하여 보도하고 있었다. 반면에, 우리나라인 경우에는 화제의 뉴스 중에 주로 어린이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뉴스를 주로 선정하여 어린이들에게 많은 정보를 알려주려는 차원에서 재구성하고 있었다. 하지만, 어린이와 관련된 뉴스이기는 하나, 단어나 문장표현 등은 어린이 눈높이가 아닌, 일반 성인대상 층의 눈높이로서 진행 아나운서가 보도하는 형식을 띠고 있었다. 이 코너에서 특이한 점은 일본은 시의성 있는 시사적인 화제의 일반 뉴스에 관심이 더 많은 데 비하여, 우리나라의 경우는 주로 어린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일반 뉴스를 어린이 시청자들에게 알려주

고자 하는 보도성향이 강하였다.

이 코너의 등장인물인 뉴스 진행자를 비교하여 보면, 일본인 경우는 일반 아나운서가 아닌, 원숭이가 안경을 낀 모습의 핀토군이라는 캐릭터를 등장시키고 있다는 점과, 어린이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꼬마 성우 목소리를 등장시키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였다. 이와 함께 핀토군이 경쾌한 음향 리듬감에 맞춰서 아나운서처럼 마이크를 대고 한 주간에 일어났던 화제의 뉴스를 브리핑하고 있었다. 이것은 보는 시청자로 하여금 웃음을 자아내게 하며, 어린이에게는 친근감을 더해주는 요소가 될 뿐 아니라, 어린이 뉴스가 딱딱하지 않고 재미있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구심체의 기능을 하고 있었다.



코너2. NHK의 「이번 주 대 의문점」 과 KBS의 「Q&A 이것이 궁금하다」 코너 비교

먼저 두 코너를 같은 대상으로 비교해 본 이유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어린이로부터 다양한 질문을 받아 프로그램이 구성되고 있었고, 교육적 측면을 고려하여 어린이 시청자들을 위하여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너 구성과 내용에서는 큰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두 코너를 비교해 본다면, 「이번 주 대 의문점」 코너는 어린이들이 보내온 질문 엽서 중에서 가장 시의성이 있고 시사적이면서 많은 어린이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내용을 하나 선정하여 어린이의 눈높이에 적합한 내용설명으로 이루고 지고 있었다. 다루고 있는 주제의 발생배경과 원인, 과정, 문제점, 해결책 등도 아빠 진행자 자세히 설명하며 진행하는 코너였다. 이 코너의 특징은 처음 시작에서부터 종료시까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어린이 시청자 중심에서 프로그램이 기획·제작되고 있었고, 진행방식도 어린이들의 지적수준과 시각적 효과를 고려하여 다양한 설명보조 도구들을 내용설명에 충분히 활용되고 있었다. 또한 진행 어린이들도 같이 배우는

자세로 궁금한 사항을 아빠에게 질문을 하면서 내용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시청자 어린이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고, 보통 7~8분 정도 방영하고 있었다.

이에 반면, KBS의 「Q&A 이것이 궁금하다」 코너는 방송제작사가 기획 의도한 주제를 가지고 취재원이 현장에 나가서 어린이로부터 질문을 받은 내용에 대하여 초대된 전문가에게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공급자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이 코너에서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남·여 아나운서가 어린이들이 궁금해 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질문내용을 의도적으로 전문가에게 던져서 초대된 전문가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내용을 심화시키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며 진행하고 있었다. 특히 초대된 전문가들은 삽화를 준비하여 설명하는 경우도 있었고, 현장의 어린이들로부터 질문사항을 모니터로 보면서 답변하는 진행을 보여 주고 있었다. 진행 아나운서의 질문에 대해 전문가와 대화를 주고받는 형식으로 자세한 설명을 통하여 내용을 심화시켜 나가는 진행형식을 보여주고 있었다. 특이할 점은 이 코너는 주로 전문가의 설명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어린이들에게 당부사항이나, 해서는 안 될 사항, 조심할 사항 등 학교의 선생님과 같은 주입식 교육적 측면의 내용이 많았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고, 방영시간도 보통 14분 정도로서 「KBS 어린이 뉴스탐험」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코너였다.

특히 「이번 주 대 의문점」 코너의 가장 큰 특징은 다양한 설명보조 도구【각종 모형, P.O.P(글자피켓모형, 판자모형 등)삽화, 애니메이션, 동영상, 그래프, 그래픽】의 종류가 다양하고, 진행자들이 어린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 수단으로서 자주 사용하고 있다. 이 코너에서 사용되어지는 보조 도구들만도 평균 15개 이상으로서 어린이들의 인지발달 및 시각적 효과까지를 고려하여 전달해 줌으로써 어린이들이 어려워하는 시사 뉴스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해주고 있었다. 또한 어떤 화제 뉴스에 대한 발생배경, 과정, 결과, 문제점에 이르기까지 심층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서, 어린이들이 사회제반에 대한 현상 이해에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고, 세상 돌아가는 현상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동기 부여 역할을 해 주고 있었다. 이것은 정보전달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일반 뉴스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었고, 어린이들의 교육적 측면까지 고려한 다른 코너와는 차별화된 구성을 보여 주고 있었다.

이에 반해, KBS의 「Q&A 이것이 궁금하다」 코너에는 전문가와 진행 아나운서의 대화형식에 의한 내용 설명으로 진행을 이끌어 가는 단조로운 형태를 보여 주고 있었고, 가끔 전문가의 준비된 그림삽화나 표 삽화를 활용하고 있는 수준이었다.

그 이외에는 설명보조 도구로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것이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한 도표나 그래프, 지도로서 아나운서의 내용설명에 보조되는 통계자료나 핵심내용 요약에 사용되는 백 데이터로의 기능을 주로 하고 있었다. 일본의 뉴스프로그램에서 자주 사용되는 다양한 설명보조 도구에 비하면 그 종류의 다양성과 사용빈도는 한정되어 있었다. 준비된 삽화인 경우에도 같은 형식이 많고, 단순하며, 그림보다는 글자 전달에 주로 중점을 두고 있어서 어린이들의 시각적인 효과까지를 고려한 일본의 「NHK 주간 어린이 뉴스」와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이 코너의 또 하나의 특징은 일본의 뉴스프로그램인 경우는 우선 아빠역이 핵심 주제를 쉬운 단어로 개념정리를 해주며, 이 주제에 따라서 큰 틀의 모형을 준비하고 내용전개에 따른 세부 작은 설명보조 도구들을 이용하여 설명해 나가는 이야기 진행방식을 띠고 있었다. 예를 들어 노동후생성이라는 국가기관을 설명할 때에는 먼저 어떤 곳이며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개념정리부터 설명하고 나서 내용전개에 따른 작은 세부모형들이나 그림삽화 등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설명 보조수단을 이야기 전개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활용하면서 내용설명에 깊이를 더해 가고 있었다. 또한 이 코너는 내용설명을 쉽게 하기 위하여 보조수단으로서 모형이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 인물모형인 경우는 실제 해당 인물의 특징을 잘 살려 만들어져 있어서, 그 모형만으로도 어린이들은 누구인지를 쉽게 알 수 있게 제작된 것이 특징이었다. 특히 일본의 이 코너는 성인들 중에서도 일반 뉴스가 어려운 대상 층이나 전반적인 현상에 있어서 이해도가 어린이와 비슷한 눈높이라고 볼 수 있는 외국인에게 있어서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코너이기도 하였다.



코너3. NHK의 「과연 그렇군! 고개 꼬퉁이는 악동들」 과 KBS의 「뉴스탐험 현장속으로」 코너 비교

NHK의 「과연 그렇군! 고개 끄덕이는 악동들」 코너와 KBS의 「뉴스탐험 현장속으로」 코너를 같은 대상으로 비교해본 이유는, 현장 취재한 동영상은 어린이 시청자들에게 전달하고 있었다. 하지만, 취재원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일본에서는 진행자인 어린이가 직접 현장에 가서 취재하고 체험한 내용을 스튜디오 안에서 전달하고 있었고, 우리나라인 경우에는 취재원이 현장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어린이들을 인터뷰하거나 취재한 내용을 아나운서가 설명하고 있어서, 진행방식에서 큰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NHK 주간 어린이 뉴스」 프로그램의 정기적인 특집방송 코너로서 가장 이슈가 될 만한 중요한 주제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었다. 「NHK 주간 어린이 뉴스」 프로그램 코너 중 정기적인 코너로서는 가장 긴 방영시간인 15분⁷⁾을 할애하고 있었다. 엄마역이 진행을 이끌어 나가며 진행자인 꼬마 3명이 교대로 화제가 된 현장에 가서 취재 하거나 현장 체험을 통하여 얻은 각종 정보들을 직접 취재한 어린이가 동영상 화면을 보면서 설명해 나가는 식으로 진행되는 코너이다. 이 코너의 특징은 현장 취재자가 어린이 진행자이므로 취재하면서 느낀 감상이나 화면상에 소개되지 못한 정보 등도 서로 이야기 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며 진행하는 이점도 있다. 이와 함께 핀토군(캐릭터)이 현장 설명을 도와주는 보조역할을 하기도 하면서 궁금해 하던 의문점을 어린이 진행자 스스로가 발견해 내는 표현 그대로 「과연 그렇군! 고개 끄덕이는 악동들」 코너가 된 것이며, 가장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코너이기도 하다.

KBS의 「뉴스탐험 현장속으로」는 주로 어린이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어떤 사건 혹은 화제가 되는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서 일어나고 있는 체험현장이나 화제의 현장을 취재하여 소개해 주거나, 현장에 있는 어린이를 인터뷰하기도 하고, 어린이들의 체험하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화면에 담아서 진행 아나운서가 상황설명을 해 나가면서 진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NHK의 「과연 그렇군! 고개 끄덕이는 악동들」 코너인 경우는 어린이 진행자가 직접 현장에 가서 취재를 하고, 체험한 것을 스튜디오 안의 가족구성원 진행진과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느낀 감상을 주고받으면서 진행함으로써 현장의 생생한 분위기가 그대로 전달되고 있었고, 감정적인 측면에까지 서로 공유가 되고 있었다. 이에 반해, 『KBS 어린이 뉴스탐험』 코너에서는 뉴스의 진행자와 현장에서의 취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일본의 이 코너에서처럼 화면상에 보이지 않는 정보나 감정적인 공감대까지 형성되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주로 어린이들이 현장에서 활동하는 장면이 주를 차지함으로써, 어린이 시청자의

7) 코너마다 방영시간은 코너가 시작되는 도입 멘트로부터 다음코너 소개 전까지 시점으로 측정하였다.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일반 뉴스의 성격인 정보제공 측면이 강하였다.



코너4. 「질문 펍펍」 코너

어린이들이 보내온 질문엽서에 의하여 내용이 구성되고 있고, 궁금증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비정기적인 특집코너이다. 매주 방영되지 않고 1년에 4회~6회 정도 방영되고 있으며, 이 코너가 방송될 때에는 『세상 속 정리해본 1주일간』 코너 이외의 전 코너는 생략되게 된다. 이 코너에서 다루고 있는 질문내용의 수는 보통 5개~7개이며, 여기에서 가장 시의성이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질문을 1개 선정하여 「이번 주 대 의문점」 코너와 같이 아빠역이 다양한 설명보조 도구(수단)를 활용하여 알기 쉽게 설명해 나가며 진행한다. 그 이외의 질문은 꼬마 진행자 교대로 현장에 직접 가서 취재하거나 체험하기도 한 내용을 동영상 보면서 스튜디오 안에서 소개해 준다. 이때 취재하면서 느꼈던 감상이나 의견 등을 진행자들이 같이 공유해 나가면서 대화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어린이들의 이해를 높여 나간다. 질문내용에 따라서는 실물을 스튜디오 안에 갖고 와서 설명하기도 하고, 전문가를 초빙하여 체험하면서 어린이들의 궁금증을 풀어나가는 경우도 있다. 총 편성 시간은 32분 중에 26분 이상으로서 어린이들의 궁금증을 집중적으로 해결하는 코너이다.

특히 이 코너는 꼬마 진행자이 직접 찾아가서 취재함으로써 살아있는 현장설명과 생생한 체험 내용을 스튜디오 안에 그대로 전달할 수 있어서 현장과 스튜디오 안의 일체감이 조성되어 TV 시청을 하고 있는 어린이 시청자들에게 살아있는 뉴스 그대

로를 전달할 수 있는 코너이기도 하다. 또한 이 점에 있어서는 「과연 그렇군! 고개 끄덕이는 악동들」 코너와 비슷하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의 「Q&A 이것이 궁금하다」의 코너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현장의 어린이로부터 다양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질문 평평」은 비정기적인 특집 코너로서 어린이들의 질문엽서에 의하여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2개월에 1회 정도 특집으로 방영되는 비정기적인 코너라는 점에서도 다르다.

아래 그림은 「질문 평평」 코너로서 어린이 시청자가 보내온 엽서질문에 대하여 꼬마 진행자와 아빠역·엄마역이 실물 혹은 그림삽화를 보면서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다.

- ① 「질문 평평」 코너의 시작화면이다.
- ② 어린이 시청자 질문 중에 옥수수수염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어린이 출연자가 실제 옥수수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다.
- ③ 비눗방울은 어떻게 해서 생기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먼저 표면장력의 원리부터 아빠역·엄마역 진행자가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다.
- ④ 공을 어떻게 하면 멀리 던질 수 있나요? 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꼬마 진행자가 직접 야구 코치를 찾아가서 공을 멀리 던지기 위한 바른 자세를 배우고 있는 장면이다.



코너5. 「이번 주 대활약 선수」 코너

한 주간에 있어서 가장 활약이 빛나는 스포츠 선수 혹은 대표팀을 유행하는 곡에 실려서 소개하는 코너이다. 선수들의 주요 경기장면이나 대표 선수팀의 경기장면을 신나는 유행곡에 실려서 동영상으로 소개함으로써 경쾌하고 신나는 느낌의 코너이다. 동영상의 하단에는 경기장면의 주요내용을 지막 글자로 나타내어 주고 있고, 소개된 선수를 인터뷰하는 장면이 중간에 포함되어 있는 형식으로서

보통 편성시간은 1분~2분 이내이며 코너 중에서 가장 시간편성이 짧고 비중이 낮다.

아래의 화면은 「이번 주 대활약 스타」 코너의 선수들이 경기 장면이다.

- ① 「이번 주 대활약 스타」 코너의 시작화면이다.
- ② 일본의 유명한 야구선수인 이치로 선수가 미·일 합쳐서 3,086본의 일본 최다 안타기록을 내었다는 내용과 주요 경기장면을 보여주는 동영상 화면이다.
- ③ 크롭다테 선수와 세계랭킹 9위인 18살 선수가 Wimbleton 테니스 대회에서 경기하는 장면을 소개하여 주는 장면이다.



코너6. 「소식들 어서 오렴」 코너

어린이들이 보내준 질문엽서에서 하나를 채택하여 프로그램 코너를 구성하며 보통 시사적이며 정치적인 질문내용은 「이번 주 대 의문점」 코너에서 다루어지며, 이 코너는 평소 어린이들이 주변에서 궁금하게 여겨왔던 상식적 수준의 가벼운 질문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다양한 그림삽화나, 실물을 보여 주면서 어린이 시청자와 같은 연령대인 꼬마 진행진이 직접 설명하는 진행방식으로서 내용설명이나 용어 선택 등이 어린이 눈높이에 맞게 구성되어 있고, 보통 편성시간은 2분 이내이다. 아래 그림은 「소식들 어서 오렴」 코너로서 어린이 시청자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꼬마 진행자가 그림삽화를 보면서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다.

- ① 「소식들 어서 오렴」 코너의 시작화면이다.
- ② 신호등에서 파란신호는 초록색인데 왜 파랑이라고 말하나요? 라는 엽서 질문에 대하여 꼬마 진행자가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다.
- ③ 해마다 오는 제비는 같은 제비일까요? 라는 엽서 질문에 대하여 꼬마 진행자가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한·일 뉴스프로그램을 비교한 것을 요약해 보면, 일본의 「세상 속 정리해본 1주일간」 코너는 국내·외 뉴스 중에서 화제가 될 만한 내용 중에서 4꼭지 정도를 선정하여 사건발생 일자별로 핀토군(캐릭터)이 보도하고 있었고, 주제어도 간결하고 쉬운 단어로 어린이 눈높이에 맞게 재구성하여 정리해 주고 있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뉴스가 보여요」 코너도 같은 형식으로서 1주일간의 화제뉴스를 소개해주는 코너이지만, 주로 어린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내의 화제뉴스를 선정하여 어린이 시청자를 고려하여 재구성은 하고 있으나, 용어 선택이나 문장표현에서는 여전히 성인대상 층의 눈높이인 일반 뉴스의 보도성향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었다.

한편 「과연 그렇군! 고개 끄덕이는 악동들」 코너에서는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나 국내에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화제를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그 심각성을 공유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법을 모색해 보는 정기적인 특집코너였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특집으로 방송되며 보통 편성시간은 15분 이상으로서 비중 있게 다루고 있었다.

「뉴스탐험 현장속으로」 코너는 어린이들이 있는 현장으로 취재원이 찾아가서, 어린이들이 다양한 체험 장면이나, 화제의 뉴스 현장을 취재하고 그 내용을 아나운서가 소개하면서 진행하고 있었다.

또한 「이번 주 대 의문점」 코너는 시사적이면서도 정치적인 이슈를 다루는 코너인 만큼 어린이 시청자들이 이해수준을 돕기 위하여 다양한 모형 및 그림삽화 등 설명보조 도구들이 사용되고 있었다. 이러한 설명보조 도구들은 진행자들이 내용 설명에 직접 활용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이해수준을 높이고 있었다. 모형은 제작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데에도 불구하고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어 방송제작사의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를 알 수가 있었다. 또한 어린이뿐만 아니라 일반뉴스가 어려운 성인대상 층이나, 어린이와 같은 수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외국인에게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

는 코너였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진행방식도 차이가 있었다. 일본의 뉴스프로그램인 경우는 5인 가족 구성원이 역할이 주어지고, 여기에다 퓌토군(캐릭터)이 합류하여 대화를 주고받으며 완벽한 하나의 가족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있었다. 여기에다가 꼬마 진행자가 직접 현장에 가서 취재하고 체험함으로써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스튜디오 안에 그대로 전달하고 있어 보는 어린이 시청자로 하여금 현장과의 일체감을 느끼게 하고 있었다. 또한 화면에서 제공되는 정보 이외에도 꼬마 진행자가 직접 체험하면서 느낀 소감이나 기획·의도 되지 않는 정보까지도 서로 공유할 수 있어서, 시청자 어린이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꼬마 진행자는 정보를 전달하는 제3자의 입장의 아니라, 현장 체험의 주체자이면서 취재원이었다.

반면에 우리의 뉴스프로그램에서는 전 코너를 아나운서 중심의 진행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어서 단조로운 진행 형태를 띠고 있었고, 일반 뉴스의 경직된 이미지가 그대로 전달되고 있었다. 또한 취재원이 어린이 체험중심의 현장에 가서 많은 어린이의 목소리를 담아내려고 하고는 있으나, 오히려 현장에 너무 많은 어린이가 등장하여 산만한 느낌을 갖게 하였다. 뉴스 진행자는 취재원이 취재한 내용을 시나리오대로 그대로 전달하려는 보도 성향이 강하였고, 취재원 또한 현장에 직접 체험자가 아닌 간접 참여한 전달자이고, 뉴스 진행자도 단지 전달자이므로 현장의 살아있는 목소리가 시청자 어린이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같은 어린이 뉴스프로그램이라고 하지만, 일본의 뉴스프로그램은 전체 코너가 어린이 눈높이에서 알기 쉽게 재구성되어 어린이 시청자 중심의 뉴스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뉴스프로그램은 어린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뉴스로 구성하고는 있으나, 시청대상 층이 일반 성인들의 눈높이로 되어 있었고, 「Q&A 이것이 궁금하다」 코너 이외에는 내용을 단순히 전달하려는 정보제공 기능의 성격이 강하였다. 이 시점에서 함미연의 「어린이 뉴스」의 내용 중에 “우리는 어린이처럼 말하는 것을 피하려고 노력합니다. 어린이는 어른이 어린이처럼 행동할 때 바로 알아차리고 자신이 이 뉴스 프로그램에서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어린이는 그 프로그램을 유치한 방송으로 판단하고 즉시 다른 채널로 바뀌버릴 것입니다.” 라는 문구를 굳이 재인용 하지 않더라도 시청자인 어린이들이 먼저 알아차리고 외면해버리는 뉴스프로그램으로 될 수 있다고 본다.

2. < 연구문제 2 >에 대한 분석결과- NHK의 사례

한·일 어린이 뉴스프로그램에는 어린이들의 이해 수준을 돕기 위하여 다양한 설명 보조 도구(수단)들을 활용하고 있었고, NHK에서 활용한 사례들은 아래와 같다.

<모형을 대상 설명 보조도구로 활용한 사례>

1. 인물인 경우 : 실제인물의 특징과 얼굴이 닮은 모형을 사용하고 있고 특히 「이번 주 대 의문점」 코너에서 이런 모형이 가장 많이 사용되어진다.



① 북한의 미사일 발사문제로 사이가 안 좋았던 미국이 관계를 개선하려고 먼저 북한에게 협상하자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② 6월 12일에 이란에서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었는데, 4명의 입후보 중에 아흐마드네자드 대통령과 무사비씨와의 2명이 겨루는 선거였고, 거의 접전이 예상되었는데, 선거결과는 2배정도 차이가 생겨서 무사비 지지자들이 뭔가 사기가 있었다고 해서 재선거를 요구하는 행진을 시작하여 정부 측 군대와 충돌하게 되어 1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설명 장면이다.

3) 일본 중의원 해산을 민주당이 이슈화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중의원 임기는 4년 인데 비하여 4년 동안에 무려 총리가 고이즈미, 아베, 후쿠다, 아소 등 4명의 총리가 국민의 의견 없이 교체된 것과 집권당인 자민당의 지지율이 여론 조사 결과에 의해 낮게 나타나서 중의원을 해산하여 빨리 재선거하게 되는 배경을 아빠역이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다.

(ex, 김정일 총서기, 이란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 노동후생성 국장, 일본총리 등)

2. 기관(기구)·단체 및 장소인 경우 : 모형을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① 국회는 중의원과 참의원이 있고, 중의원은 정원 480명, 임기는 4년간이다. 총리대신이 해산권한이 있고, 해산되면 새로운 선거에 의하여 중의원이 선출된다. 이번 해산의 원인은 민주당의 요구에 인한 것으로서, 그 이유는 4년 동안 국민의 의

견 없이 총리대신이 4명이나 교체되었고, NHK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지지율이 21%로 떨어짐으로써 아소총리가 경기 침체 등의 이유로 해산을 보류하자는 주장은 더 이상 설득을 얻지 못하고 결국 해산하게 되었다는 내용설명 장면이다.

② 전 후생노동성 국장이 부하를 시켜서 장애인 단체도 아닌 「백산회」라는 회사에 장애인 단체라고 거짓 증명서를 발급해서 우편요금을 20억 엔이나 싸게 해줬다고 해서 체포되었다는 내용 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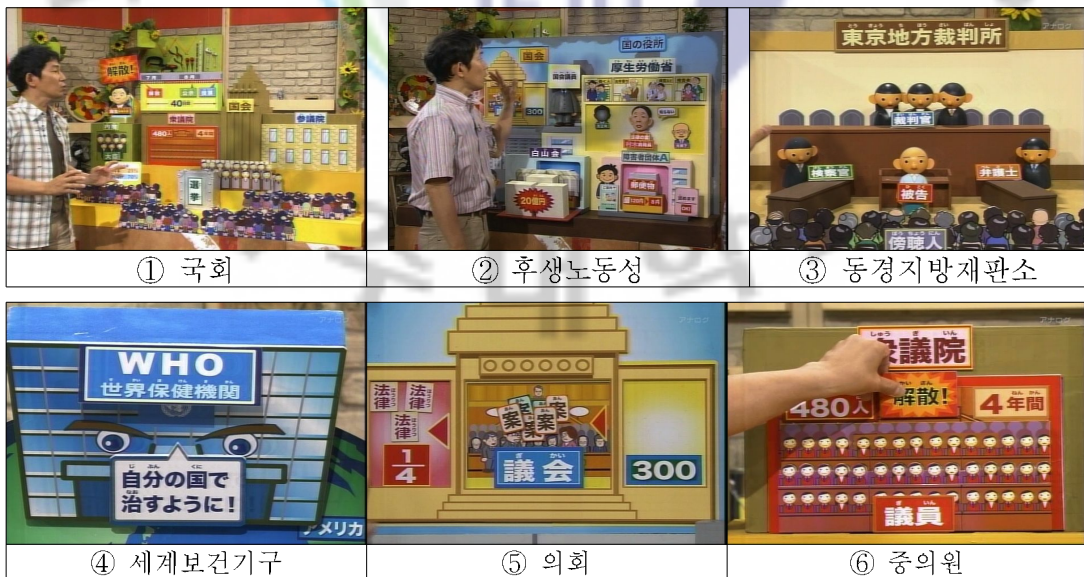
③ 달라진 재판원재판제도에 대하여 설명하는 부분으로서, 지금까지는 전문 법관이 재판을 했었는데, 달라진 내용에는 재판원이라는 일반사람도 재판관과 함께 판결을 내리게 된다. 이런 재판원은 동경에 사는 재판원 후보 중에서 47명을 뽑아 재판관의 면접을 거치고 나서, PC를 통해 제비뽑기를 하여 최종 6명의 재판원을 선출하였고, 이들이 재판관과 함께 재판하게 된다는 내용 설명이다.

④ 장기이식과 관련하여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장기이식이 필요한 사람은 자국에서 고치도록 세계 각국에 호소하게 되었다는 설명 내용이다.

⑤ 국회는 각종 법률안을 만드는 곳이고, 2008년에는 약 300개의 법률안이 나왔는데 이 중에서 1/4만이 법률로 제정되었다는 설명 내용이다.

⑥ 중의원은 정원 480명, 임기는 4년간으로서 해산되면, 선거에 의하여 선출하게 된다는 내용 설명이다.

(ex. 기관·단체·기구 : 세계보건기구, 재판소, 후생노동성, UN , 은행, 단체, 발전소 등



3. 어떤 현상(사건)설명에 활용한 사례 : 지구, 미사일, 핵무기, 핵폭탄, 핵실험에 따른 도구 등

① 북한의 김정일이 산에서 핵실험을 성공했다고 했는데, 산속에 옆으로 구멍을 내어서 주변에 콘크리트로 굳혀 놓고는 가장 안쪽에 핵폭탄을 넣어서 작은 돌, 모래 같은 것을 넣고 콘크리트로 완전히 굳게 해서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폭발시키는데, 이 때 에너지가 얼마나 나왔는지를 밖에서 측정하는 것이 핵실험이다.

② 핵폭탄의 폭발과정은 이 노란색이 점화장치로서 불을 붙이게 되며, 주변에 검은 자리가 폭탄인 것으로서, 가운데 있는 노란부분이 플루트늄이라는 핵물질이다. 팽 하고 압력을 주면 반대로 팽! 하고 폭발하며 이것이 큰 에너지 성질을 갖게 되는 것이다. 즉 실제로 폭발하는 과정은 이 점화장치에 불을 붙여 팽! 하고 일제히 폭발을 시키는 것이고 이것이 엄청난 압력이 가해져서 플루트늄이 확 작아지게 되고, 그 반동으로 팽! 폭발하게 되며, 이때의 에너지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과 같은 규모가 된다는 내용설명이다.

③ 지난달에 북한이 미사일 인공위성이라고 해서 발사했는데, 이 미사일의 가장 끝부분에 핵폭탄을 실으면 미국 등으로 공격할 수도 있지만, 지금 단계로는 핵폭탄이 그 안에 들어 갈 만큼 작게 만들 수 없다고 하는데 만약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게 작게 만들 수 있다면 바로 공격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내용 설명 장면이다.



① 산속에서 핵무기 실험 ② 핵폭탄이 폭발원리 설명 ③북한이 미사일 발사장면

4. 제품(자원포함) : 자동차, 에어컨, 냉장고, 태양광판넬, 인공호흡기, 지구, 석유 등

① 온실효과가스를 2020년까지 15%를 감소시킨다는 중기 목표를 가지고 설명하는 장면으로 온실효과가스에는 프레온, 메탄 같은 가스를 말하며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장면이다.

②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여 각국이 쇼크를 받았는데, 핵

개발을 그만두면 발전소를 세워주기도 하고, 석유 등을 선물로 주겠다고 말하는 것으로 해서 이야기가 진행되게 되었다는 내용에 사용되었던 모형이다.

③ 자동차가 팔리지 않게 되면 일본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되며, 이는 많은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는 자동차회사에서 만들어지지만, 자기 회사만으로 만들 수 없으며, 엔진은 엔진을 만드는 회사, 바퀴는 바퀴를 만드는 회사,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사나 용수철 같은 작은 부품으로 되어 있고, 각각의 부품을 전문으로 만드는 회사가 관련되어 있는 등 많은 사람들이 관련되고 있어, 차가 팔리지 않게 되어 차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장면이다.



① 지구, 집, 에어컨, 냉장고

②석유 및 발전소

③자동차 및 부품모형

5. 기타 : 국기, 투표함, 바이러스, 인체내부, 꽃, 멸종동물원 등

① 옥수수의 수염은 다른 식물과는 달리 수술 꽃과 암술 꽃이 있는데, 옥수수의 맨 위쪽에 있는 꽃이 수술 꽃으로서, 여기서 꽃가루를 만든다. 암술 꽃은 옥수수의 수염부분으로서 꽃가루가 여기 암술 꽃에 받아들이면 열매가 생기게 된다는 설명 내용에 사용했던 모형이다.

② 6. 12일 이란에서 대통령을 뽑는 선거는 아흐마드네자드 전 대통령과 무사비씨가 사실상 겨루는 선거였으며, 아흐마드네자드씨는 자유를 표방하지 않았고, 지방에는 극진한 경제정책을 펼쳤지만, 도회지 쪽에는 많은 실업자를 배출시켜 경기가 나빠졌다고 하는 불만을 사게 되었다. 그래서 도회지 쪽에서 인기가 있었던 무사비씨의 지지자들 세력과 충돌이 일어났다는 내용 설명이다.

③ 국회에서 장기이식 법에 대하여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장기이식이란 병에 걸린 장기(폐, 심장, 간)가 있어 잘 움직이지 않았을 때에 건강한 장기를 가져와 옮겨 심는다. 라고 해서 장기이식이며, 죽은 사람의 심장은 움직이지 않

게 되므로 특별한 상태, 즉 뇌사상태의 사람으로부터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장기가식에 대하여 설명하는 장면이다.



<그림삼화를 대상 설명 보조도구로 활용한 사례>

1. 주제어 설명, 핵심 단어 설명, 부품 내용 설명, 요약내용 설명, 사례설명, 자연현상 (개기일식, 표면장력)설명 시 등에 주로 사용된다.

① 달라진 재판원재판에 대한 제도 설명에 앞서서 실제 일어난 사건으로서 72세 남자가 근처에 살고 있던 66세의 여자를 칼로 살해한 사건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② 모기향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설명하는 부분으로서, 시들어 버린 제충국 주변에는 벌레가 죽어 있어서 미국, 유럽 등은 옛날부터 벌레에 효과가 있는 꽃이라고 알려져 있다는 설명 내용이다.

③ 노인층이 늘어나면서 농업을 하는 사람이 줄어들어 밭이나 논은 황폐해지고, 그곳에서 살던 개구리나 잠자리 등은 사라져 버렸는데, 다시 나무를 자르고 물을 끌어오거나 해서 물웅덩이를 만들어 주었더니 예전에 살던 생물들이 다시 돌아와서 살게 되었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P·O·P(피켓모형, 판자모형 등)를 대상 설명 보조도구로 활용한 사례>

1. 글자, 숫자, 연도, 지도, 조건설명, 설명내용 요약정리 할 때 경우 사용되고 있다

① 대외적으로 자동차가 팔리지 않게 되는 이유는 첫째가 외국경쟁자동차 회사가 늘어나고 있고, 둘째는 세계적으로 인구가 감소되고 있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② 국회에 장기이식법이 개정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본인(어린이)과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했지만, 개정될 장기이식 법에서는 가족의 동의만 있으면 본인인 어린이의 동의 없이도 장기이식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그래프·표를 대상 설명 보조도구로 활용한 사례>

1, 목표치, 판매량, 증가율, 기타 통계 치에 주로 사용된다.

① 2008년도에 일본에 난민 신청자 수는 1,599명, 난민으로 인정된 자는 불과 57명으로서, 대기자 수는 약 2,600명으로 공식적으로 난민으로 인정받기가 힘든 상황을 그래프로 설명하고 있다.

② 2008년 1월 ~ 2009년 2월까지 자동차 판매대수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으로서 급격히 감소되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③ 올해 일본에서는 작년에 비해 산수와 이과 수업이 1시간씩 늘어나는데 이는 불경기가 계속되는 일본이 경제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이과나 산수를 잘 하는 아이를 키워야 한다고 해서 문부과학성의 학습지도요령이 30년 만에 바뀌게 되어 수업 수가 늘어나게 되었다는 내용 설명이다.



<애니메이션을 대상 설명 보조도로 활용한 사례>

1. 상황제언 및 상황설명, 시스템설명, 회사내부구조 및 유기적 관계 설명에 사용된다.

① 난민으로 인정받으면 그나마 일본 거주권과 의료보험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은 3개월 마다 거주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 후 대기기간도 2년~8년이 소요되어, 이 기간에 일자리를 찾지 못하여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난민 신청대기자가 일자리를 구해달라는 내용의 그림삽화이다.

② 기타큐슈시에서는 자동차가 팔리지 않는 불경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역 대학과 부품회사, 컴퓨터관련회사와 공동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과 부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내용을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주고 있다.

③ 캔 속에 구멍을 내고 산소와 가스를 가득 넣은 다음 불을 대면 종이컵이 날아오르게 된다는 실험으로서 아이들에게 산소라는 것이 물건을 태우는 데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실험으로 보여 주는 장면이다.



<동영상을 대상 설명 보조도로 활용한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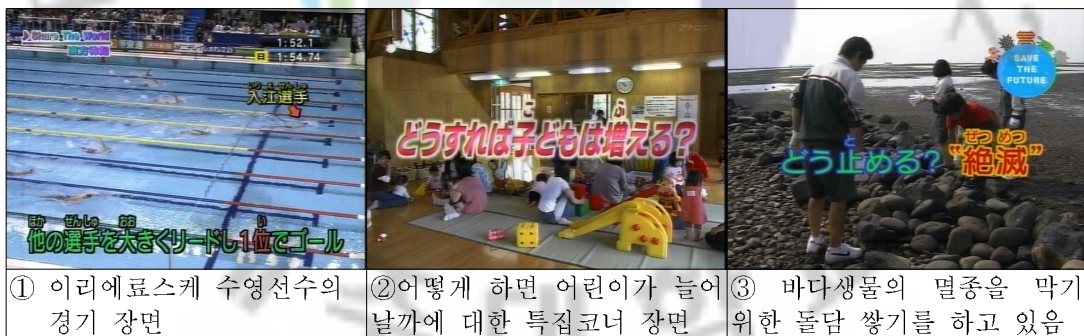
1. 「이번 주 대활약 스타」 코너에서 선수들의 주요경기 장면과 특집인 「과연 그렇군! 고개 끄덕이는 악동들」 코너의 현장 취재 설명, 자료화면 제공 등에 주로 사용된다.

아래의 그림은 동영상이 주로 사용되는 「과연 그렇군! 고개 끄덕이는 악동들」 특집 코너로서 꼬마 진행자가 직접 현장을 취재하는 장면과 선수들의 「이번 주 대활약 스타」 코너의 주요경기 장면을 동영상으로 보여준다.

① 「이번 주 대활약 스타」 코너로서 일본의 세계적인 배영선수인 이리에료스케 선수가 1위로 결승점을 향하는 경기하는 장면을 보여준다.

② 「과연 그렇군! 고개 끄덕이는 악동들」 코너로서 일본에서도 저출산으로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어떻게 하면 어린이 수를 늘일 수 있는가에 대하여 특집으로 방송하고 있고, 이를 꼬마 진행자가 직접 현장에 가서 취재하는 장면이다.

③ 「과연 그렇군! 고개 끄덕이는 악동들」 코너로서 일본에서도 멸종동물들이 늘어남에 따라 여러 가지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고, 그 중 하나로서 바닷가에 돌담 쌓기를 통하여 해초가 자라고, 바다생물들이 알을 낳으려 몰려들고, 옛날에 살았던 생물들이 다시 살 수 있는 환경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는 지역을 꼬마 진행자가 찾아가서 현장취재도 하면서 이 지역 학생들과 직접 돌담 쌓기 체험을 하고 있는 장면이다.



① 이리에료스케 수영선수의 경기 장면

②어떻게 하면 어린이가 늘어날까에 대한 특집코너 장면

③ 바다생물의 멸종을 막기 위한 돌담 쌓기를 하고 있음

2. < 연구문제 2 >에 대한 분석결과- KBS의 사례

KBS에서 어린이들의 이해 수준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설명 보조도구(수단)들의 활용 사례는 아래와 같다.

<모형을 대상 설명 보조도구로 활용한 사례> - 모형은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았다

<그림삽화를 대상 설명 보조도로 활용한 사례>-그림삽화는 전부 소개하였다.

- ① 봄꽃의 개화시기를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다.
- ② 돈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 유래에 대한 설명 장면이다.
- ③ 편식을 극복하는 4가지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 ④ 황사 대비방법으로 물도 많이 마시고, 깨끗이 청소하기, 손 깨끗이 씻기, 크림 바르기 등이 있다는 설명이다
- ⑤ 새 학기 증후군의 극복방법 4가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 ⑥ 편식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 4가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 ⑦ 번은 ⑥번의 그림삽화 중 두 번째를 확대한 것으로서, 편식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중에 신체발달의 장애를 가져온다는 설명이다.
- ⑧ 봄철 건강관리법에 대하여 4가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 ⑨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화폐속의 그림의 의미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실물삽화)



① 봄꽃 개화시기

② 돈이 생겨난 유래

③ 편식을 극복하는 방법



④ 황사시 대비방법

⑤ 새 학기 증후군 극복방법

⑥ 편식이 몸에 미치는 영향



⑦ 편식으로 성장발달에 장애

⑧ 봄철 건강관리법 설명

⑨ 화폐속의 그림의 의미 설명

<표 삽화를 대상 설명 보조도구로 활용한 사례>-표 삽화도 전부 소개하였다.

- ① 감기와 알레르기에 증상 구분에 대하여 전문가 설명하고 있다.
- ② 알레르기 예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 ③ 유괴범이 자주 사용하는 행동 수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 ④ 만약에 유괴를 당했을 때, 대처요령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다.

| <p>감기 vs 알레르기</p> <table border="1"> <tr> <th>감기</th> <th>알레르기</th> </tr> <tr> <td>탁한 기침</td> <td>마른 기침</td> </tr> <tr> <td>누르고 뿌연 콧물</td> <td>맑은 콧물</td> </tr> <tr> <td>발열과 두통 O</td> <td>발열과 두통 X</td> </tr> <tr> <td>대개 10일이면 저절로 호전</td> <td>적절한 치료시까지 증세 지속</td> </tr> </table> | 감기 | 알레르기 | 탁한 기침 | 마른 기침 | 누르고 뿌연 콧물 | 맑은 콧물 | 발열과 두통 O | 발열과 두통 X | 대개 10일이면 저절로 호전 | 적절한 치료시까지 증세 지속 | <p>알레르기 예방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실내 습도를 50% 이하로 유지 힘대 소파-인형 등 직면되기 서석체 최대한 제거 귀가하자마자 반드시 손 등을 청결하게 씻는다 항사혈에 의출을 살리고, 외출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 <p>이런 사람! 조심하세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자를 사 주거나 돈을 주는 낯선 사람 부모님, 선생님어 찾는다는 등 속임수를 쓰는 사람 길을 묻는다면서 같이 가져고 하는 사람 | <p>만약에 유괴를 당했을 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유괴범과 있을 때는 울음을 참고 무서워하지 마세요. 고개를 숙이고 범인의 얼굴을 가끔씩 보지 마세요. 밥을 주면 먹기 싫더라도 꼭 먹어요. 묻는 말에 대담 잘하고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
|---|-----------------|-------------|-------------|-------|-----------|-------|----------|----------|-----------------|-----------------|--|--|---|
| 감기 | 알레르기 | | | | | | | | | | | | |
| 탁한 기침 | 마른 기침 | | | | | | | | | | | | |
| 누르고 뿌연 콧물 | 맑은 콧물 | | | | | | | | | | | | |
| 발열과 두통 O | 발열과 두통 X | | | | | | | | | | | | |
| 대개 10일이면 저절로 호전 | 적절한 치료시까지 증세 지속 | | | | | | | | | | | | |
| ① 감기, 알레르기 구분 | ② 알레르기 예방법 | ③ 유괴범의 공통수법 | ④ 유괴 시 대처방법 | | | | | | | | | | |

<컴퓨터 그래픽을 대상 설명 보조도구로 활용한 사례>

- ① 황사에 의하여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설명 장면이다
- ② 어린이 기호식품 부적합 판정사례를 그래프로 보여 주고 있다.
- ③ 미성년자 유괴·검거현황 집계를 도표로 보여 주고 있다.

| <p>0.5µm ~ 5µm의 작은 황사들은 호흡기 질환, 눈병, 피부병 등을 유발시킴</p> | <p>어린이 기호식품 부적합 판정 사례</p> <table border="1"> <tr><th>연도</th><td>2001</td><td>2002</td><td>2003</td><td>2004</td><td>2005</td></tr> <tr><th>부적합 판정 사례 수</th><td>2,633</td><td>1,633</td><td>1,633</td><td>1,633</td><td>1,633</td></tr> </table> <p>자료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청</p> | 연도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부적합 판정 사례 수 | 2,633 | 1,633 | 1,633 | 1,633 | 1,633 | <p>미성년자 유괴·검거현황 자료: 경찰청</p> <table border="1"> <tr><th>연도</th><td>2004</td><td>2005</td><td>2006</td></tr> <tr><th>유괴·검거 현황 수</th><td>16</td><td>13</td><td>18</td></tr> </table> | 연도 | 2004 | 2005 | 2006 | 유괴·검거 현황 수 | 16 | 13 | 18 |
|---|--|----------------|-------|-------|-------|------|------|-------------|-------|-------|-------|-------|-------|--|----|------|------|------|------------|----|----|----|
| 연도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 | | | | | | | | | | | | | | | |
| 부적합 판정 사례 수 | 2,633 | 1,633 | 1,633 | 1,633 | 1,633 | | | | | | | | | | | | | | | | | |
| 연도 | 2004 | 2005 | 2006 | | | | | | | | | | | | | | | | | | | |
| 유괴·검거 현황 수 | 16 | 13 | 18 | | | | | | | | | | | | | | | | | | | |
| ① 황사시 호흡기 질환 유발 | ② 어린이 기호식품 부적합 사례 | ③ 미성년자 유괴·검거현황 | | | | | | | | | | | | | | | | | | | | |

- ④ 과자류인 경우 불량식품 성분검사 중 첨가물인 타르색소와 감미료 검사를 하게 되는데, 타르색소 주요 국가별 사용현황 도표이다.
- ⑤ 십이지(자, 축, 인, 묘, 진, 사, 오)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해당되는 띠 동물을 사진으로 같이 보여 주면서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다.
- ⑥ 학교 앞 반경 200m안에서 부정불량식품들을 없애는 그린푸드존 제도가 생기게 되고, 그 반경을 표시해 주고 있는 장면이다.
- ⑦ 중국에서 황사 폭풍으로 열차가 뒤집혀서 사망자 및 부상자가 발생한 지역을

그래픽 지도로 표시해 주고 있다.

- ⑧ 황사는 3월~5월에 발생하며, 때로는 강한 서풍을 타고 한국을 거쳐 일본과 태평양, 미국서부까지 날아간다는 내용 설명이다.
- ⑨ 편리하기도 하지만 인터넷 중독, 불건전한 정보노출, 독서량 감소라는 디지털 교과서의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는 설명이다.
- ⑩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방과 후 혼자 지내는 어린이가 전체의 4.5%이며, 그 중에서도 저소득층 가정의 어린이가 10.6%를 차지하고 있다는 내용 설명이다.
- ⑪ 두 아나운서가 서로 어떤 띠인지 알아 맞춰보기 대화하는 장면이다.
- ⑫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이 내놓은 키를 크게 하는 성장촉진 5계명에 대한 설명이다.

| 식품유형 | 한국 | 미국 | 유럽연합 |
|-------------|----|----|------|
| 식용색소적색제2호 | ○ | X | ○ |
| 식용색소적색제3호 | ○ | ○ | ○ |
| 식용색소적색제40호 | ○ | ○ | ○ |
| 식용색소적색제102호 | ○ | X | ○ |
| 식용색소황색제4호 | ○ | ○ | ○ |
| 식용색소황색제5호 | ○ | ○ | ○ |
| 식용색소황색제8호 | ○ | ○ | X |
| 식용색소황색제1호 | ○ | ○ | ○ |
| 식용색소황색제2호 | ○ | ○ | ○ |

자료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청

④주요 국가별 타르색소사용현황

⑤십이지 순서대로 내용 설명

⑥ 그린푸드존 지역 설명

2007년 2월 28일

신장 위구르 자치구

중국

강한 바람에 의해
일본, 태평양, 미국 서부까지 이동 가능

디지털 교과서의 문제점

1. 인터넷 중독
2. 불건전 정보 노출
3. 독서량 감소

⑦ 황사 폭풍으로 열차가 뒤집혀서 사망자가 발생한 지역 표시

⑧ 황사는 서풍을 타고 일본, 태평양, 미국서부까지 이동함

⑨ 디지털 교과서의 문제점 설명

방과 후 '니홀로 어린이'

조사: 여학생 200명, 전라 호랑이 400명 대상

4.5%

저소득층 10.6%

⑩ 니홀로 집에 어린이가 늘고 있어 보호대책이 시급함

⑪ 두 아나운서의 띠에 대하여 알아 맞춰보기 대화내용

성장촉진 5계명

- 햇볕
- 스트레칭
- 운동
- 칼슘 흡수 촉진
- 성장판 자극

⑫ 생활습관을 통해 키를 키울 수 있는 성장촉진 5계명 설명

< KBS 9시 뉴스 장면 활용 사례, 코너 시작화면 및 전문가 설명 장면 >

①~③ 「뉴스가 보여요」, 「Q&A 이것이 궁금하다」의 코너 도입부분에 KBS 9 뉴스 장면이 자주 사용되고 있는 장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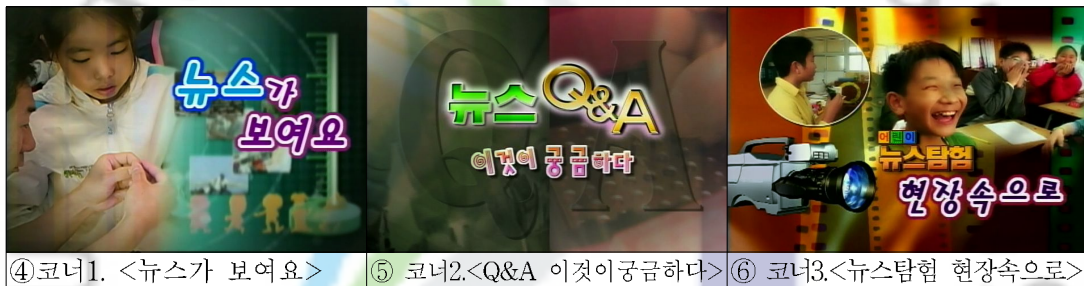
④~⑥은 각 코너의 시작화면이다.



① KBS 9뉴스 장면

② KBS 9뉴스 장면

③ KBS 9뉴스 장면



④ 코너1. <뉴스가 보여요>

⑤ 코너2.<Q&A 이것이궁금하다>

⑥ 코너3.<뉴스탐험 현장속으로>

⑦ 황사 시 대비방법 중에 실내에서는 황사먼지가 들어오지 않도록 창문을 닫아 주고, 건조하므로 물을 많이 마시고 크림도 발라주며, 외출 후에는 손과 발을 깨끗이 씻기, 습도조절을 위하여 빨래를 널고, 가슴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⑧ 편식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중에는 신경질적인 성격으로 변하게 되며, 키가 자라지 않고, 에너지 부족으로 쉽게 피곤해지며, 여러 가지 질환에 걸리게 된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⑨ 초대된 전문가가 십이지 중에서 왜 원숭이가 제일 먼저 나오는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고, 하단부에 조그맣게 보이는 것이 석가모니, 원숭이, 소의 그래픽 그림이다. 부연설명을 하면, 석가여래설에서 석가가 열반하실 때 1등~12등까지 순서대로 오는 자에게 신으로 봉해준다고 해서 소가 제일 느리니까 가장 먼저 출발하게 됐는데, 약삭빠른 쥐가 소 등에 몰래 타서 석가님 앞에 가서는 소보다 앞에 떨어지는 모습을 움직이는 그래픽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KBS 어린이 뉴스탐험」인 경우에는 총 8회분 방송에서 11회의 삽화(그림, 도표)가 사용되고 있었다. 이 중 그림삽화는 7회 사용되고 있었는데, 초대된 전문가가 내용을 설명할 때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었고, 나머지는 도표삽화로서 주로 내용요약이나 용어를 비교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그 외에는 컴퓨터 그래픽(도표, 그래프, 지도)을 주로 사용하고 있었다. 일본의 「NHK 주간 어린이 뉴스」인 경우에는 다양한 모형과 그림삽화 등을 진행자들이 내용설명에 직접 활용함으로써 설명보조 수단으로서의 제 기능을 다 하고 있었으며, 내용을 심화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었다. 이에 반해, 「KBS 어린이 뉴스탐험」인 경우에는 초대된 전문가가 삽화를 보조 설명 도구로서 설명하는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설명보조 도구들은 진행 아나운서의 내용 설명에 통계치나 부수적인 자료로서 화면상에 표시해 주는 주변 기능으로서의 역할만 하고 있어서, 어린이들의 이해수준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일 뉴스프로그램에서는 시각적인 효과를 고려하여 어린이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흥미를 불러들이기 위한 다양한 설명 보조도구들이 사용되고 있었지만 그 종류의 다양성과 사용빈도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일본의 뉴스프로그램은 다양한 각종 모형, P.O.P⁸⁾(판자모형, 글자피켓모형), 애니메이션, 그래프, 그림삽화 등을 내용설명에 직접 사용하여 어린이들 눈높이에 맞게 설명하고 있었고, 그 이외에도 실감나는 내용설명을 위하여 다양한 소품들을 사용하는 등 동적인 요소까지 고려하여 생동감 있게 설명하고 있었다. 예를 든다면, 병에 걸린 심장을 떼어 내어 건강한 심장으로 이식한 결과 뛰고 있는 심장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지구온난화로 더워지는 현상을 빨강게 조명효과를 주어서 실감나게 처리한다든지, 핵폭

8) P. O. P : Point of Purchase의 약자로서 이 논문에서는 글자피켓모형, 판자모형 이라고 정의하였다.

발 시 점화장치에 불이 들어오게 하는 등 시각적인 효과에 동적인 요소까지 고려하여 설명보조 도구들을 충분히 활용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이해수준을 한층 높이는 기능을 하고 있었다. 즉 뉴스라는 딱딱한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다양한 설명보조 도구들을 활용함으로써 어린이 시청자들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뉴스를 재미있게 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특히, 그림삽화인 경우에는 얼굴표정까지 세심하게 그려져 있어서 어린이 시청자들이 내용 이해는 물론 재미있게 뉴스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실업자들의 표정, 빈곤층의 표정, 도시사람들의 표정, 섬이 가라앉는 것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워하는 표정 등 상황에 맞는 얼굴표정으로 어린이들의 눈높이에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세세한 부분까지 배려하고 있었다.

반면, KBS의 뉴스프로그램은 우선 설명보조 도구들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았고, 사용 빈도도 낮아서 어린이들의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수단으로서는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삽화인 경우에도 어린이들의 시각적인 효과를 고려한 그림의 다양성보다는 설명내용의 요약에 중점을 두고 있었고, 특히 초대된 전문가의 내용 설명에만 활용되고 있었다. 또한 설명보조 도구들이 자주 사용되어지지 않다보니, 화면에 자막글자로 알려주는 내용이 많았다. 설명보조 도구로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래픽은 어린이들에게 내용을 심화시키고, 알기 쉽게 이해시키는 보조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아니라 아나운서의 설명에 부수적으로 첨가되는 통계자료 혹은 핵심내용 요약으로서의 어린이들의 눈높이와는 별개인 백 데이터로서 기능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린이들의 지적 발달단계를 고려한다면 이런 다양한 설명보조 도구들은 시각적인 효과를 통한 내용이해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딱딱한 뉴스프로그램의 이미지에서 벗어나게 만들으로써 어린이 시청자들을 뉴스프로그램으로 끌어들이게 하는 흡인요소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다고 본다.

이처럼 일본의 「NHK 주간 어린이 뉴스」의 경우에는 다양한 설명보조 도구들이 사용되어져서 어린이 뉴스가 한결 쉬우면서도 재미있게 구성되는 데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었고, 일반 뉴스의 딱딱한 이미지를 벗어던지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었다. 지금까지도 꾸준히 시청자 어린이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고 장수프로그램으로 명맥을 이어오는 것이 이를 입증한다고 하겠다.

3. < 연구문제 3 >에 대한 분석결과

일본의 「NHK 주간 어린이 뉴스」는 1994년 4월에 첫 방송을 실시했으며, 처음 방송에서부터 아빠, 엄마, 장남, 장녀, 차남이라는 5인 가족구성원으로 진행되는 가족 뉴스프로그램으로 출발하였다. 아빠역에는 1994년~2004년까지는 「NHK 주간 어린이 뉴스」의 제작자인 “이케가미 아키라”씨가 약 10년간 담당하면서 프로그램을 이끌어 왔고, 현재는 과학·문화부 기자이자 동시에 NHK 해설위원(이와모토 히로시)이 『이번 주 대 의문점』 코너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모형, 그림삽화, P.O.P 등을 내용 설명에 직접 사용하여 설명함으로써, 어린이들이 평소 어렵게 생각하는 시사적인 문제를 어린이 눈높이에서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하고 있었다.

특이한 점은 현재까지 약 17년간 방송되어 오면서 아빠역 진행자가 3명밖에 교체 안 됐다는 사실은 어린이 뉴스프로그램을 비교적 영속성을 가지고 이끌어 가려고 하는 제작자의 의도가 숨어 있다고 하겠으며, 나머지 진행 가족구성원은 2~3년마다 교체되고 있었다.

엄마역(하시노 에미)은 배우 출신으로서, 역할은 『과연 그렇군! 고개 꼬퉁이는 악동들』 특집코너를 진행하며 아빠역과 함께 보조를 맞추면서 진행자 어린이 3인의 엄마역할을 담당하면서 한 가정의 분위기를 편안하고 부드럽게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장남역(유우)은 현재 중학교 1학년생으로서, 각 코너의 현장취재 및 『소식들 어서 오렴』 코너를 진행하고 있고, 궁금한 사항을 솔직하게 질문하여 아빠역이 자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며, 현장 취재한 경우에는 느낀 소감 등을 중1학년 수준에 맞게 진솔하게 자기 의견을 말하기도 한다.

장녀역(히토미)은 실제 초등학교 6학년생으로서, 각 코너의 현장취재 및 『소식들 어서 오렴』 코너를 장남역과 번갈아가며 진행하고 있고, 잘 모르는 사항을 그때마다 질문하면서 아빠역이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제공과 아울러 초등학교 6학년 수준에 맞게 자기 생각을 소신 있게 말하기도 하며, 때로는 비판적인 의견을 소신 있게 말하는 대담성을 보여주기도 하여 요즘 일본 어린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직

·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다.

차남역(카이시)은 실제 초등학교 4학년생으로서, 각 코너의 현장취재를 형(장남역)과 누나(장녀역)가 교대로 취재를 나가기도 하고, 체험도 하면서 얻은 많은 정보를 초등학교 4학년 눈높이에 맞춰 어린이 시청자에게 전달하기도 하면서, 다소 비중이 낮은 막내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자신이 눈높이에서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면서 아빠역이나 엄마역이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자기 소신을 잘 표현하기도 하며, 가끔 예기치 않게 실수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천진난만한 어린다운 모습 그대로를 어린이 뉴스프로그램에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서 뉴스라는 딱딱한 이미지가 아닌, 어린이 뉴스프로그램이 한결 부드러워지는 데에 일조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실존인물은 아니면서 각 코너에서 분위기 메이커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핀토군이라는 캐릭터이다. 1994년 4월에 첫 방송이 시작되었을 때에는 스크프군(전체적으로 돼지모양을 하고 있었으며, 코 부분이 카메라렌즈 모양을 하고 있는 캐릭터)이 어린이 시청자에게 상당히 인기가 있었다. 2005년부터는 핀토군이라는 원숭이가 안경을 낀 모습의 캐릭터가 새롭게 선보여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핀토군은 각 코너의 도입 부분을 소개해 주고 있었고, 어린이들에게 호감을 주는 꼬마 성우목소리로 변장하여 친근감을 더 한층 높이고 있었다. 한편 『세상 속 정리해본 1주일간』 코너에서는 한 주간에 일어난 어렵고 시사적인 일반 뉴스를 어린이들 눈높이에 맞는 용어로 재구성하여 어린이 시청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여 주고 있었다. 그 외에도 각 코너에서는 진행자들이 부족한 설명부분을 보충하여 설명하여 주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뉴스프로그램 전 코너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분위기 메이커로서 실존인물이 아니면서도 비중 있는 역할을 잘 소화해 내면서, 어린이들로부터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었고, 약방에 감초역할을 하고 있었다.

한편 한국의 「KBS 어린이 뉴스탐험」의 등장인물의 변천사를 살펴보면, 2001. 7. 20일에 「뉴스탐험 505」라는 어린이 시사교양 프로그램으로 첫 방송을 시작하여 남·여 아나운서, 전문가 1명, 어린이 2명이 고정 출연하면서 진행하는 것으로 출발하였다. 2003. 8. 18일(101회) 방송부터는 꼬마 출연자가 사라지고 대신에 기자 1명이 고정 출연진으로 합류하여 진행되어 오다가, 2003. 11. 3일(112회)에는 KBS2 TV에서 KBS1 TV로 채널이 변경되는 역사의 전환기를 맞이하였다. 2003. 11. 10일(113회)에는

프로그램 개편에 의하여 시청대상 층이 어린이 대상에서 온 가족이 함께 즐겨보는 가족 뉴스프로그램으로 바뀌게 되었으나, 진행형태는 남·여 아나운서로만 진행되고 있었다. 2004. 5. 3일(137회)부터는 재미있는 뉴스프로그램 진행을 위하여 개그맨이 고정 진행자로 새롭게 등장하게 되었고, 2004. 11. 1일(162회)에는 개그맨 이외에 기자 1명이 더 늘어나 프로그램의 내실을 기하였고, 2005. 2. 21일(178회) 방송 시에는 개그맨이 사라지고 남·여 아나운서, 기자 1명이 고정 진행하는 형태를 보이게 된다. 2005. 5. 2일(188회) 방영 시에는 종전과는 달리 여자 어린이 진행자를 등장시켜 남자 아나운서와 같이 공동으로 뉴스를 진행하게 하는 획기적인 모습을 보여 주었다. 이후에는 2005. 10. 31일(210회)부터는 남·여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기존의 형태로 돌아가서 같은 진행형태로 일관되게 방영되다가, 2007. 4. 23일 278회분을 마지막으로 종영하기에 이르렀다.

남자 아나운서(이광용)는 전 코너를 진행하며 매회 때마다 방송사의 제작의도 되어진 주제를 중심으로 전문가를 초청하여 어린이들이 궁금해 할 질문을 의도적으로 던지고, 전문가의 답변을 유도하여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뉴스프로그램을 이끌어 나가고 있었다. 특히 『Q&A 이것이 궁금하다』 코너는 어린이들이 궁금해 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질문을 먼저 어린이들을 대신하여 질문하고 그 외에는 현장 어린이로부터 직접 질문을 받아서 전문가로부터의 답변을 들으면서 진행하고 있었다. 『뉴스가 보여요』 코너는 남자 아나운서가 주로 성인대상의 눈높이에서 일반 뉴스를 보도하는 형식으로 소개되고 있었고, 『뉴스탐험 현장속으로』 코너도 남자 아나운서가 설명하고 있었다. 현장 취재자와 뉴스진행자가 다른 점은 일본의 「NHK 주간 어린이 뉴스」의 꼬마 진행자가 직접 현장 취재하고 체험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여자 아나운서(이정민)는 전 코너를 진행하며, 전문가를 초청하여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질문으로 전문가의 답변을 유도하여 전체 프로그램을 이끌어 나가고 있었고, 남자 아나운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서 남·여 아나운서의 역할을 뚜렷이 구분할 만한 경계선이나 특징적인 내용은 없었다.

이상과 같이 한·일 뉴스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인물과 유형 및 그 역할에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4. <연구문제 4>에 대한 주제비교

한·일 뉴스프로그램의 코너별 주요 주제만을 표로 만들어 본 것이다. 아래의 표와 같이 방송일은 NHK와 KBS의 방송일자를 표기하였고, KBS인 경우에는 회차와 총 방영시간도 함께 표시하였지만, NHK는 회차는 알 수 없었고, 총 방영시간이 32분으로 동일하므로 표시하지 않았다. NHK경우는 주제가 코너마다 명확히 제시되었지만, 「세상 속 정리해본 1주일간」 코너는 너무 쉬운 용어로 주제가 되어 있어서 자칫 제목만으로는 무슨 내용인지 파악하기 어려울 수가 있다. KBS의 「뉴스탐험 현장속으로」의 코너는 각각 다른 현장화면으로서 하나의 공통된 주제로 제시하기가 어려웠다.

<표 2> 한·일 어린이 뉴스프로그램 주제 비교

| 방송일 | 방송사 종류 | |
|---|---|---|
| | NHK | KBS |
| '09.4.18(일본) '07.2.26(한국) <271회>27:57 | 코너1. 이번 주 대 의문점 질문: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어 내나? 코너2. 세상 속 정리해본 1주일간 ①4.13일(월) 엄청난 일이 ②4.14(화) 위험하다! ③4.15(수) 너무 많이 벌어들였다고 말 해져서 ④4.17(금) 동경은 어떻게 되나? 코너3. 과연 그렇군! 고개 꼬덕이는 악동들 주제어 : 학교의 수업이 늘어난다? 코너4. 이번 주 대활약 스타소개 | 코너1. 뉴스가 보여요 -네팔에서 꽃핀 한국의 슈바이처- -말칸반도에서 부는 태권도 바람- -4대 강에서 항생제 검출- 코너2. Q&A 이것이 궁금하다.<(十二支)> ① 올 해 돼지띠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② 올 해가 황금돼지해라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③ 언제부터 띠가 생겨났나요? 코너3. 뉴스탐험 현장속으로 -평창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 후보도시- < 먼운초등학교 전국동계체전 장면> |
| '09.4.25(일본) '07.3.5(한국) <272회>27:57 | 코너1. 세상 속 정리해본 1주일간 ① 4.19일(일) 노래 소리에 깜짝! ② 4.21(화) 사형이 정해졌다. ③ 4.21(화) 모두 잘 봤어요? ④ 4.23(목) 반성하고 있습니다. 코너2. 이번 주 대 의문점 질문 : 장기이식법이란? 코너3. 과연 그렇군! 고개 꼬덕이는 악동들 주제어 : 어떻게 하나? 차동차가 팔리지 | 코너1. 뉴스가 보여요 -어린이용품 환경 호르몬 검출 - -아동 성폭력 피해자 발생에 따른- -칭찬이 독이 될 수 있다- 코너2. Q&A 이것이 궁금하다. <봄날의 황사현상에 대하여> ① 봄이 되면 왜 새싹이 돋고, 꽃이 피는 거죠? ② 온도도 꽃이 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목련이나 다른 꽃들을 보면 겨울눈이 있잖아요? |

| | | |
|--|--|--|
| | <p>않는다?</p> <p>코너4. 이번 주 대활약 스타 수영(배영)선수 이리에료스케의 0.08초 차이로 세계신기록을 경신하지 못함</p> <p>코너5. 소식들 어서오렴 질문 : 왜 파란신호는 초록색인데 파랑이라고 말하나요?</p> | <p>③ 봄에는 잎보다 꽃이 먼저 피는데 왜 그럴까요?</p> <p>④ 부산에 있는 친구들은 꽃이 피었다고 하는데, 우리 동네는 왜 아직 꽃이 안 피나요?</p> <p>⑥ 봄이 되니까 자꾸 졸리고 피곤해요. 왜 그럴까요?</p> <p>코너3. 뉴스탐험 -현장속으로- <서울용산소방서: 소방안전 체험></p> |
| <p>'09.5.30(일본) '07.3.12(한국) <273회>27:37</p> | <p>코너1. 세상 속 정리해본 1주일간 ① 5.25(월) 다시 했다. ② 5.25(월) 오래간만에 ③ 5.26(화) 사기를 도와주다니! ④ 5.27(수) 드디어 그 회사도!</p> <p>코너2. 질문 평평 ① 북한의 핵실험 왜 문제가 되나요? ② 교복은 왜 학교마다 다르나요? ③ 「에코카」란 어떤 차입니까? ④ 기상예보사의 시험은 어떤 문제가 나오나요? ⑤ 어떻게 하면 공을 멀리 던질 수 있나요?</p> | <p>코너1. 뉴스가 보여요 -불붙은 달 탐사 경쟁- -책가방 필요 없는 디지털 교과서- -여자야구연맹 출범-</p> <p>코너2. Q&A 이것이 궁금하다. <봄의 불청객 황사> ① 황사먼지는 중국에서 생기는데 왜 우리나라까지 날아와요? ② 다른 나라는 황사가 안 부나요? ③ 황사는 어디까지 갈 수 있나요? ④ 황사는 언제부터 시작됐나요?</p> <p>코너3. 뉴스탐험 현장속으로 <불량식품 인터뷰 하는 장면></p> |
| <p>'09.6.13(일본) '07.3.19(한국) <274회>28:34</p> | <p>코너1. 세상 속 정리해본 1주일간 ① 6.8(월) 우승 축하! ② 6.9(화) 겨우 인정 했다! ③ 6.12(금) 내가 그만 두겠습니다. ④ 6.12(금) 모두가 화가 나 있다.</p> <p>코너2. 이번 주 대 의문점 질문 : 온실효과가스를 줄인다는 것은?</p> <p>코너3. 과연 그렇군! 고개 꼬덕이는 악동들 주제어 : 어떻게 하면 어린이가 늘어날까?</p> <p>코너4. 이번 주 대활약 스타 <일본대 우즈베키스탄 경기 장면></p> <p>코너5. 소식 어서 오렴 코너 질문 : 왜 클로버 세 잎과 네 잎이 있어요?</p> | <p>코너1. 뉴스가 보여요 -화면: 학교폭력 UCC신고시대-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개막- -2008년 이후 고액권 지폐 발행-</p> <p>코너2. Q&A 이것이 궁금하다. <새학과와 함께 찾아오는 새학기증후군> ① 새학년 올라오니까 말할 친구도 없고 ② 선생님이랑 적응이 잘 안돼서 힘들 때가 많아요. ③ 학교 오는 게 부담스러워서 자꾸 늦잠을 자게 돼요. ④ 학교 갈 때면 배가 아픈 것 같고 머리로 아픈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p> <p>코너3. 뉴스탐험 현장속으로 어린이만의 신종스포츠를 찾아 현장으로</p> |
| <p>'09.6.20(일본) '07.3.26(한국) <275회>28:05</p> | <p>코너1. 이번 주 대 의문점 질문: 왜 후생노동성국장이 체포되었나?</p> <p>코너2. 세상 속 정리해본 1주일간 ①6.15(월) 수십만 명이 향의 ②6.16(화) 빨리 공사해요 ③6.17(수)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④6.18(목) 어린이도 인정한다.</p> <p>코너3. 과연 그렇군! 고개 꼬덕이는 악동들 왜 동물이 즐고 있는 것일까?</p> | <p>코너1. 뉴스가 보여요.(4.03초) -중국역사 교과서 왜곡 심각- -한반도가 더워지고 있다- -네티즌 감동시킨 목도리녀- <김지은씨의 가슴 따뜻한 선행></p> <p>코너2. Q&A 이것이 궁금하다.(13.32초) <유괴사건에 대하여> ① 어떤 사람을 조심해야 하나요? ② 유괴범을 알아보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③ 만약 나쁜 사람이 다가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p> |

| | | |
|---|--|--|
| | <p>코너4. 이번 주 대활약 스타 코너5. 소식들 어서오렴 코너 질문 : 해년마다 오는 제비는 같은 제비 일까요?</p> | <p>④ 유괴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⑤ 유괴당하면 무조건 있어야 하나요? 코너3. 뉴스탐험 현장속으로 <서울아현초등학교-어린이 임원선거현장></p> |
| <p>'09.6.27(일본) '07.4.9 (한국) <276회>28:24</p> | <p>코너1. 이번 주 대 의문점 질문 : 이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코너2. 세상 속 정리해본 1주일간 ① 6.22(월) 가격인하 O·K ② 6.22(월) 신기록으로 인정할 수 없다. ③ 6.23(화) 드디어 무죄로 ④ 6.25(목) 그 스타가 코너3. 과연 그렇군! 고개 꼬덕이는 악동들 주제어 : 난민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코너4. 이번 주 대활약 스타 <13년 만에 출전한 크롭다테선수와 세계 9위 18세 선수와 경기 장면> 코너5. 소식들 어서오렴 코너 질문 : 데르데르보즈(일본 스님모양의 인형)의 시작은 무엇입니까?</p> | <p>코너1. 뉴스가 보여요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 대회 유치> <생활습관을 통해 키를 키운다> <처벌과 감시강화에도 여전한 “음란물 동영상”> 코너2. Q&A 이것이 궁금하다. <새 만원·천원 권 유통시작 화면 장면> ① 돈은 은행에서 만든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② 돈이 찢어지면 은행에서 새 돈으로 바꿔주나요? 코너3. 뉴스탐험 현장속으로 <박물관이 버스로 변신하여 어린이들을 찾아가서 유물들을 보여주는 장면></p> |
| <p>'09.7.25(일본) '07.4.16 (한국) <277회>27:37</p> | <p>코너1. 세상 속 1주일간 정리하기 ① 7.19(일) 「기보우」 이루어졌다. ② 7.21(화) 선거에 ③ 7.21(화) 호우로 피해 ④ 7.22(수) 46년 만에 코너2. 질문 평평 ①-1 중의원 해산이라는 것은 어떤 일입니까? 해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①-2 해산할 때 만세 부르는 이유는? ② 「카쉐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③ 옥수수의 수염은 뭐예요? ④ 모기 잡는 제품이 있습니다만, 어떤 구조로 되어 있나요? ⑤ 비누방울은 어떻게 해서 생깁니까?</p> | <p>코너1. 뉴스가 보여요 -학교체력검사 56년 만에 바뀐다- -제1호 실종·유괴 아동 정보 발령 코너2. Q&A 이것이 궁금하다. <반감지 않는 봄 손님 알레르기> ① 알레르기인지 감기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요? -고려대학교병원 소아과 유용 답변- ② 알레르기가 왜 생기는지 알고 싶어요? -고려대학교병원 소아과 유용 답변- ③ 자신에게 알레르기를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는 거죠? 코너3. 뉴스탐험 - 현장속으로 <서울 풍납동 영어체험마을></p> |
| <p>2009.8.8(일본) 2007.4.23(한국) <278회>28:19</p> | <p>코너1. 이번 주 대 의문점 질문 : 재판원재판 무엇이 바뀌었나요? 코너2. 세상 속 1주일간 정리하기 ① 8.3(월) 비(雨)만! ② 8.4(화) 두 사람을 돌려줘요! ③ 8.6(목) 원폭의 날 코너3. 과연 그렇군! 고개 꼬덕이는 악동들 주제 : 여러분 가부키라는 것을 알고 있나요? 코너4. 소식들 어서오렴 코너 질문 : 불꽃놀이 색깔은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p> | <p>코너1. 뉴스가 보여요 <나홀로 집에 어린이 보호대책 시급> <중국대륙을 감동시킨 네 손가락의 피아니스트 이희아> <불안한 청소년! 정서장애 심각!> 코너2. Q&A 이것이 궁금하다. <편식에 대하여> ① 왜 좋아하는 것만 먹으면 안 되나요? ② 아침에 일어나면 입맛이 없어요. <화면 - 서울 문래초등학교> 친환경 재료로 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 코너3. 뉴스탐험 현장속으로 <봄 풍경과 상상 속 친구들을 한꺼번에 만나볼 수 있는 곳></p> |

위의 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일 뉴스프로그램의 주제를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국제적인 이슈를 다루고 있는지를 비교해 보면, 일본의 뉴스프로그램인 경우는 국내뉴스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북한의 핵무기 만드는 문제’ 라든가, ‘핵실험 문제’, ‘이란사태’, ‘북한의 인질 미국기자 석방 문제’ 등 글로벌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국제 시민의식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뉴스프로그램에서는 주로 국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일반 뉴스 중에서 어린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뉴스를 선정하여 다루고 있었고, 국제적 이슈가 되는 내용은 거의 다루고 있지 않았고, 간혹 국제적인 이슈인 경우도 우리나라의 애국심과 관련된 국수주의적 입장에 의거한 내용으로서 글로벌적 시각과 국제 시민의식을 키우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둘째, 한·일 뉴스프로그램 중 <코너 1>부분인 일본의 「세상 속 정리해본 1주일간」의 주제를 살펴보면 한 주간에 국내·외 뉴스 중에서 이슈가 된 내용을 보통 4꼭지 정도를 선정하여 사건 발생일 순서로 핀토군(캐릭터)이 보도하고 있었다. 주제어도 간결하고 쉬운 용어로 어린이 눈높이에 맞게 재구성하여 보도하고 있어서 자칫 한 꼭지에 제시된 주제어만으로는 무슨 내용인지 모를 수가 있겠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뉴스가 보여요」 코너 1주일간의 화제 뉴스를 전달하는 형식으로 비슷한 진행형식을 보여 주고 있으나, 어린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뉴스가 많았고, 뉴스사건 발생일이 표기되지 않아 정확히 한 주간에 일어났던 뉴스인지는 알 수 없었다.

세부적인 주제어를 살펴보면, ‘네팔에서 꽃핀 한국의 슈바이처’, ‘발칸반도에 부는 태권도 바람’, ‘4대 강에서 항생제 검출’, ‘어린이용품 환경 호르몬 검출’, ‘아동 성폭력 피해자 발생’, ‘불붙은 달 탐사 경쟁’, ‘책가방 필요 없는 디지털교과서’ 등 국내적인 화제뉴스에 초점을 두고 있었고, 국제적인 이슈인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애국심 고취와 관련된 내용이 많았다.

셋째, 일본의 「과연 그렇군! 고개 끄덕이는 악동들」 코너에서는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나 국내에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화제를 어린이 눈높이에 맞게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도 모색해 보는 코너였다. 다루고 있는 주제로는 ‘학교수업이 늘어나는 문제’, ‘자동차가 팔리지 않는 문제’, ‘어린이의 수를 늘리기 위한 방안’ ‘동물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 ‘난민에 대하여’, ‘가부키에 대하여’ 등 일

본이 안고 있는 각종 현안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내용이었다. 한편, 「뉴스탐험 현장 속으로」 코너는 취재원이 현장에 가서 취재한 내용을 아나운서가 설명하는 코너로 주제로는 ‘평창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 후보도시’, ‘안전뉴스를 만드는 현장의 장면’, ‘불량식품을 먹는 아이들 인터뷰 장면’, ‘어린이만의 신종스포츠’, ‘어린이 임원선거 치르는 장면’, ‘버스로 변신한 박물관 설명’, ‘영어체험마을’, ‘동물 진료체험’ ‘천문대’, ‘천체관측실’, ‘천체투영실’ 등이 있었다. 코너 그대로 어린이들이 현장속에서 체험하는 장면을 진행 아나운서가 소개하는 코너이다.

넷째, 「이번 주 대 의문점」 코너는 시사적이면서 정치적인 이슈를 주로 다루며, 주제는 ‘북한의 핵문제’, ‘장기이식법 개정문제’, ‘온실효과가스 문제’, ‘후생노동성국장의 체포문제’,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 ‘재판원재판 도입문제’ 등이 있었다. 어린이들이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정치적 이슈 문제들을 다양한 설명보조 도구들을 활용하면서 알기 쉽게 각종 모형, 그림삽화, 애니메이션을 사용하여 어린이에 맞게 내용을 설명하고 있었다. 이와 비슷한 우리나라의 「Q&A 이것이 궁금하다」 코너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십이지’, ‘황사 및 봄철 질병과 건강관리’ ‘새 학기 증후군’, ‘유괴사건’, ‘화폐에 대하여’, ‘알레르기’, ‘편식’ 이었다. 일본의 주제가 정치적이고 시사적인 내용이라면, 우리나라의 주제는 시의성에서 거리가 먼 일상적이면서도 지속적으로 문제시 되어 왔던 주제들이 많았다.

다섯째, 「질문 펍펍」은 비정기적인 특집 코너로서 주제어로는 ‘북한의 핵실험 문제’, ‘교복이 학교마다 다른 이유’, ‘에코카란?’, ‘기능예보사 시험문제’, ‘공을 멀리 던질 수 있는 방법’, ‘중의원 해산문제’, ‘Car Share문제’, ‘옥수수의 수염’, ‘모기향’, ‘비누방울’ 에 이르기까지 시사·정치적 이슈에서 주변의 가벼운 소재에 이르기까지 질문내용이 다양하다.

여섯째, 「소식들 어서 오렴」 코너는 평소 주변에서 궁금해 왔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코너로서 진행자 어린이가 직접 설명한다는 점이 특이하였다. 주제어로는 ‘신호등에서 초록색 신호를 왜 파란신호라고 하는지’, ‘세 잎과 네 잎 클로버에 대하여’, ‘매해마다 오는 제비는 같은 제비인지’, ‘일본 스님모양의 인형의 기원에 대하여’, ‘불꽃놀이 색깔은 어떻게 만들어 지는지’ 등 이었다. 평소 어린이들이 주변에서 관심 있게 보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던 질문사항에 대하여 궁금증을 해소하는 코너로서 어린이들이 보내온 질문엽서에 의하여 프로그램이 기획·제작된다는 점에서는 「이번 주 대 의문점」 코너와 같지만, 정치적이고 시사적인 무거운 소재의 질문내용이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일곱째, 「이번 주 대활약 스타」 코너는 이치로 야구선수, 이리에료스케 수영선수,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전과 크롭다테 테니스 선수 등의 주요 경기장면이 소개되고 있었다.

제5장 결론 및 제언

1. 요약 및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한·일 뉴스프로그램에 대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일 뉴스프로그램 코너 및 이야기 진행방식에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코너 구성에서 살펴보면, 일본 뉴스프로그램의 코너는 4~5개로 구성되어졌고,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3개의 코너 구성으로서 단조로운 형태를 띠고 있었다.

일본 뉴스프로그램의 정기적인 코너로는 ① 「이번 주 대 의문점」, ② 「세상 속 정 리해본 1주일간」, ③ 「과연 그렇군! 고개 끄덕이는 악동들」, ④ 「이번 주 대활약 스타」 ⑤ 「소식들 어서오렴」이 있으며, 비정기적인 코너로는 ⑥ 「질문 평평」이 있다. 그러나 ①~③은 항상 정기적으로 방영되지만, ④~⑤번 코너인 경우에는 정기 코너의 편성시간에 좌우되기는 하나 정기적인 코너로서 같이 방영될 때가 많고, 편성시간의 제한으로 하나의 코너가 생략될 수도 있으나, 방영 빈도수에서는 정기적인 코너로 분류하는 것이 비교적 정확한 분석에 가깝다고 판단되었다. 그러나 ⑥번의 「질문 평평」 코너는 2개월에 1회 정도 방영되므로 비정기적인 코너로 분류하였다.

우리나라의 뉴스프로그램 코너에는 ① 「뉴스가 보여요」, ② 「Q&A 이것이 궁금하다」, ③ 「뉴스탐험 현장속으로」의 3개의 정기적인 코너로만 구성되어 있었다.

이야기 진행방식에서는 일본의 경우에는 어린이들이 보내온 우편엽서 질문에 의하여 뉴스 아이템들이 기획·구성되고 있었고, 진행자들은 실제 가족구성원과 같은 역할을 가지고 자연스러운 대화분위기 속에서 어린이 시청자 눈높이를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뉴스프로그램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방송·제작사의 기획의도에 의하여 주제가 선정되고 있었고, 의도된 주제를 가지고 현장에 있는 어린이들로부터 질문을 받아 아나운서와 초대된 전문가가 서로 자연스러운 대화 형식에 의하여 진행되는 공급자 중심의 뉴스프로그램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둘째, 시각적인 효과를 고려한 다양한 보조설명 도구들을 사용하고 있었으나, 그 다양성이나 사용빈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다.

일본의 뉴스프로그램은 다양한 인물모형, P.O.P⁹⁾(판자모형, 글자피켓모형), 애니메이션, 그래프, 일러스트(그림삽화 등)를 진행자가 내용설명에 직접 활용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이해를 높이고, 내용을 심화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뉴스프로그램은 일단 보조설명 도구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았고, 단순한 형식을 띠고 있었으며, 사용빈도가 낮았다. 따라서 어린이들의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능보다는 아나운서의 설명을 보완하는 보조 자료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었다. 특이한 점은 일본의 경우에는 보조설명 도구로서 각종 모형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컴퓨터 그래픽을 주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런 다양한 설명보조 도구들은 어린이들의 지적 발달단계를 고려한다면 시각적 효과를 통하여 어린이들에게 설명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시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또한 어린이들이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알 수 있는 목마름의 해결 창구인 뉴스프로그램으로 어린이 시청자들을 모여들게 만드는 요인으로서의 역할도 한다고 보았을 때, 향후에 어린이 특성과 발달단계를 고려한 다양한 설명보조 도구들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셋째, 등장인물의 유형과 그 역할에서 차이가 있었다. 일본의 뉴스프로그램은 진행자가 하나의 의도된 가족구성원으로서 아빠, 엄마, 장남, 장녀, 차남, 핀토군(캐릭터)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 있었고, 실제로는 가족 같은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반면, 우리나라의 뉴스프로그램인 경우는 남·여 아나운서, 초대된 전문가가 진행하며, 남·여 아나운서의 역할은 뉴스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진행을 맡고 있으며, 어린이들이 궁금할 것이라고 하는 질문을 의도적으로 초대된 전문가에게 질문함으로써 전문가의 설명을 유도해 내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일본의 경우에는 꼬마 어린이 진행으로 예기치 않는 질문과 어린이다운 진솔한 대화도 가끔 엿볼 수가 있어서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그대로 느껴진다. 반면, 우리의 경우에는 아나운서의 주고받는 대화 속에 방송제작사의 기획의도가 포함된 깔끔하게 다듬어진 방송용 멘트로서 신뢰감과 안정감을 주고 있었으나, 아나운서 중심의 어린이 대상으로 교육적 측면을 고려하여 진행하다보니, 어린이들에게 당부사항이나 금지사항에 대한 주문이 많았고, 이것은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딱딱하고 어렵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넷째, 한·일 뉴스프로그램이 다루는 주제에는 차이가 있었다. 일본의 뉴스프로그램인 경우는 국내뉴스는 물론이고,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글로벌적인 시각을 키울 수

9) P. O. P : Point of Purchase의 약자로서 이 논문에서는 글자피켓모형, 판자모형 이라고 정의하였다.

있는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뉴스프로그램에서는 주로 국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화제 뉴스 중에서 어린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뉴스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었다. 국제적인 이슈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애국심 고취 등 국수주의적인 성향에 있는 사항들로서 글로벌적 시각과 국제적인 시민의식을 키우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보면, 한·일 뉴스프로그램 모두가 기획의도에서는 비슷하였다. 어린이들은 알 권리가 있고, 어린이들이 알기 쉽고, 어린이들의 정서나 관심사를 반영해서 뉴스프로그램이 제작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실현 방법상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일본의 경우는 어린이들이 보내온 우편엽서 질문내용을 가지고, 뉴스의 아이템으로 기획 및 제작되고 있었다. 각 코너마다 어린이 눈높이를 고려하여 일반 뉴스를 재구성함으로써, 어린이들을 진정한 시청자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뉴스프로그램은 기획·제작사의 의도된 내용을 가지고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전반적인 코너구성이 어린이들의 이해 수준을 고려한 교육적 측면이 강한 정보제공의 뉴스프로그램이었다.

진행방식에서도 남·여 아나운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미 주제가 기획·제작자에 의하여 선정된 주제어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서 공급자 중심의 뉴스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구성 면에서도 일본의 뉴스프로그램이 어린이의 눈높이를 고려한 용어나 문장표현으로 재구성하고 있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일반 뉴스에서 어린이와 관련된 뉴스를 중심으로 재구성하였으며, 어린이의 눈높이를 고려한 용어나 문장표현은 많지 않았다. 전반적인 코너구성이 교육적 측면이 다소 가미된 일반 뉴스의 정보전달 기능이 강한 뉴스프로그램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또한 현장 취재원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다. 일본의 뉴스프로그램인 경우는 꼬마 진행자가 직접 현장에 가서 취재하고 체험함으로써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어린이 시청자들에게 그대로 전달하고 있었고, 화면상에 보여 지지 않는 체험담이나, 의도하지 않았던 습득된 정보까지 어린이 시청자들에게 전달하고 있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뉴스프로그램에서는 취재원이 어린이가 체험하고 있는 현장에 가서 어린이와 인터뷰 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고자 하나, 너무 많은 어린이가 등장하여 오히려 산만한 감이 있었고, 깊이 있는 내용 전달보다는 다량의 정보를 전달하려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한편 어린이를 진정한 시청자로 인식하고 있는지 여부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다. 일본 뉴스프로그램인 경우는 어떤 지역이 뉴스 중에 나타났을 때에는 반드시 먼저 그 위치부터 알려주고 나서 본격적인 설명에 들어가는 진행형식을 보여 주고 있었다. 주로 사용되는 것이 지도 그래픽이나, 판자모형의 지도로서 어린이를 진정한 시청자로 배려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하겠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많은 지명이 거론되지만 위치부터 알려주고 나서 진행하는 경우도 없었으며, 그래픽 지도가 사용된 경우는 총 8회 방송분 중에 1회로서 이것은 큰 대형사건이 발생한 장소였기 때문에 표시된 것이었다.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 중에는 어린이 시청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 뉴스프로그램인 경우는 보내온 질문엽서를 통하여 일본 어린이들이 평소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어린이 진행자들이 실제 초·중학생들이므로 방송 중에 대화하는 내용이나, 자기 의견을 말하거나 현장 취재 후에 서로 체험담을 통하여 은연중에 평소 일본 어린이들의 생각을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다. 반면, 우리나라의 뉴스프로그램인 경우는 방송제작사의 기획·의도된 주제 속에서 현장에 있는 어린이에게 질문함으로써 우리 어린이들이 무엇을 궁금해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있으나,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

국제적인 시민의식을 키울 수 있는지 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일본 뉴스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뉴스는 물론 전 세계에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국제적인 시사문제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어서 차세대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글로벌적인 시각과 안목을 키울 수 있는 주제가 많았다. 반면, 우리나라의 뉴스프로그램인 경우는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제내용이 대부분이었으며, 간혹 국제적인 뉴스인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애국심 고취와 관련된 내용 위주여서 폭넓은 국제적인 시민으로서의 시각을 키우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2. 연구한계 및 제언

이상과 같이 본론에서 한국과 일본의 어린이 뉴스프로그램 내용을 가지고 비교분석해 보았는데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었다.

첫째는 어린이 뉴스에 관련된 국내의 논문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으며, 영국을 비롯한 유럽에서는 어린이 뉴스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나, 본 연구자는 이와 관련된 연구 자료를 입수하지 못하여 선행연구 고찰이 충분치 못하였음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둘째는 동영상 확보의 어려움으로 한·일 뉴스프로그램 중에서 각각 8회분만을 대상으로 본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일반화를 도출하는 데에는 다소 한계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뉴스프로그램의 전 코너를 분석대상으로 할 수 있어서 종합적인 비교 분석이 가능하였다.

셋째는 한·일 뉴스프로그램에 대하여 내용분석을 통한 비교 연구는 하였으나, 각각의 뉴스프로그램이 어린이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그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넷째는 비교연도가 동일하지 않는 데서 오는 한계점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KBS 어린이 뉴스탐험」은 이미 2007년 4월 23일에 종영된 뉴스프로그램으로서, 2007년도 일본의 「NHK 주간 어린이 뉴스」의 동영상을 확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불가피성이 있었기에 부득이하게 본 연구를 시작한 시기인 2009년도 방송분을 가지고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다섯째는 한·일 어린이 뉴스프로그램을 비교분석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 사항인 시나리오 확보가 불가능하였다. 결국 동영상의 방송내용을 그대로 텍스트로 만들 수밖에 없었고, 1회분 방영시간도 30분 정도여서 한·일 뉴스프로그램 각각 8회분을 텍스트로 만드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버렸다.

하지만, 어린이가 진행하는 방송에서 시나리오대로 100% 진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출연자들이 실제 방송에서 표현된 내용 그대로를 텍스트로 만드는 것은 언어로 표현된 내용은 물론이고, 미묘한 뉘앙스나 돌발적인 상황 등 기획·의도되지 않는 내용까지도 텍스트 속에 포함될 수 있어서 오히려 정확한 분석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고 하겠다.

향후 한·일 뉴스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들은 보다 많은 방송분 데이터를 확보하여 체계적으로 비교 연구하여 나가길 바라며, 뉴스프로그램 전체 코너를 비교하기보다는 어떤 특정 코너 하나를 선택과 집중하여 내용을 분석하는 방법도 시도해 보았으면 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본 연구를 바탕으로 한·일 두 나라 어린이들로 하여금 양국의 뉴스프로그램을 시청하게 하고 나서 그 감상을 설문조사하여 수용자 비교를 통한 내용분석으로까지 이루어진다면 더할 나위 없는 좋은 연구가 될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의 어린이들은 하루에도 무수히 쏟아지고 있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 걸러낼 수 있는 아무런 여과장치도 마련되지 않은 채 단지 어른들이 일반뉴스를 통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자랄 수밖에 없는 현실을 더 이상 방관만 할 수는 없다. 지금 우리 어린이들에게 맞는 글로벌적인 안목과 자질을 키울 수 있는 어린이 중심의 시각에서 어린이다운 뉴스프로그램이 새롭게 만들어져야 하는 필요성을 제기하며, 향후 새로운 어린이 뉴스프로그램이 하루 빨리 제작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끝으로 본 논문의 <연구문제-2에 대한 분석결과> 중에 일본의 다양한 설명보조 도구들을 활용한 사례에서 너무 어린이 눈높이의 문장표현이라고 지적할 수도 있겠으나, 실제 「NHK 주간 어린이 뉴스」에서 진행자들이 사용하는 문장표현 그대로를 살펴본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한·일 두 나라의 어린이 뉴스프로그램의 세세한 부분까지 심층적으로 비교하여 분석하고자 하는 본 연구자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해외에서 실제 방송되었던 어린이 뉴스의 프로그램의 실제 방송내용을 연구 자료로 확보하여 우리나라의 어린이 뉴스프로그램과 직접 비교하여 내용 분석한 사례는 없었다는 데에 본 연구는 큰 의미를 두면서, 향후에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어린이 뉴스프로그램이 하루 빨리 제작되어 본 연구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참고문헌】

- 김기태(2009).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 실태 분석 및 논의. 『한국방송학회』 봄철 정기 학술대회, 175~178
- 김차근(2003). 『어린이의 TV시청행태에 따른 편성전략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희정(2003). 어린이 TV 광고에 나타나는 소비자 정보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제17-1호(2003,봄)
- 방송위원회(2007). 2007년 지상파 주요 방송 내용분석 결과. 서울: 방송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2008). 어린이·청소년의 미디어 이용행태 및 보호방안 연구. 서울: 방송통신위원회
- 송현경·진경란(1996). 『우리나라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의 추이: 80년~95년 정기개편 내용을 중심으로』, 서울: 방송위원회
- 안정임(1997). TV어린이 프로그램 심의의 문제점/내용표현 규제만으로 역부족. 『신문과 방송』 (제313호).
- 유홍식·조은희·김지혜·이민·유선선·홍양선(2008). 국내 어린이 프로그램의 편성현황 및 발달단계별 내용분석.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제9권), 31~67
- 이정우(1999). 『어린이대상 TV 프로그램의 편성경향과 특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호영·윤성옥(2010). 어린이·청소년 보호 방송정책에 대한 의견 조사 연구. 『한국방송학보』, 통권 제24-1호(2010. 1) 152~196
- 채수영(2006). 『지상파 TV어린이 프로그램 편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국언론진흥재단(2010). 『한국언론수용자의식조사』,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한국미디어 교육학회(2002). 제6회 미디어 교육전국대회 자료집
- 한국방송개발원(1996). 어린이 대상 TV 프로그램 발전방안 연구. 서울: 한국방송개발원
- 한균태·하승태·서영남·조의현(2007). 지상파 텔레비전의 어린이프로그램에 나타난 폭력성 연구. 『한국방송학보』, 통권 제21-1호, 311~351

한상균·이정환(2010). 국내 지상파 방송사의 어린이 프로그램제작 접근방식 변화 연구: KBS<후토스-하늘을 나는 집>사례를 중심으로, 『어린이미디어연구』, 제9권 2호, 19~37

함미연(2006). 『어린이뉴스』, 서울: 커뮤니케이션 북스

홍석경(1996). 세계 6개국 공영방송 어린이 프로그램 비교연구, 서울: 방송위원회

池上 彰(2008). 이것이『週刊こどもニュース』だ、池上 彰、集英社文庫



A Comparative Study of Children's TV News between NHK and KBS

Dong-Hee Kang

Dapt. of Journalism & Public Relations

Jeju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is a comparative study of children's news shows between Korea and Japan.

No previous studies have made direct comparison of children's news between Korea and other countries.

There have been some children's news shows produced and broadcasted in Korea for a while, such as KBS's *Kid's News Expedition* and MBC's *Log-in Sing Sing News*, providing various information angled towards children viewers. However, they all went off the air. Currently, children in Korea are hearing news from news shows for adults.

This study is aimed at examining the following. First, how are the segments organized in children's news shows, and how are the news reports presented? Second, what are the kinds of tools that provide extra information of the news to children? Third, what are the types and roles of the casts in the children's news shows? Fourth, what are the differences in news topics in children's news shows between different broadcasting companies?

The study method for the Korean programs was to make a transcript of the videos that KBS provides on its website, and for Japanese programs, the actual broadcasted footage of NHK recorded onto a DVD disc was translated into Korean.

The following are the key findings. First, there wer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how they organized the segments and how they presented the news reports. On organizing the segments, Japanese programs consisted of various segments, four to five in number, while Korean programs had only three segments, showing a relatively simple format. On how the news reports are presented, Japanese programs were planned and produced based on questions on postcards received by children viewers, and five regular cast members played as a family.

In Korean programs, the news topics were selected according to the broadcaster and producer's intent, and the news was presented by a male and a female announcer.

Second,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variety of the tools provided for the news and frequency of its use. Japanese children's news shows used various tools to provide extra information on the news, and the cast members actually used them on the show to provide better understanding for the children. In Korean children's news shows, the variety of the aids was lacking and the cast did not use it to explain the meaning of the news to the children. The tools only served as background data to support the announcer's report.

Third,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type and roles of the cast. In Japanese children's news shows, each of the five family member cast have their own roles of making a real family-like ambience that made the news friendlier for children. On the contrary, Korean children's news shows had a format resembling ordinary adult news shows with one male and one female announcer, and the producer's intent was well delivered, and was just as formal as news for adults.

Fourth, Japanese children's news shows covered not only the domestic news topics but also global news. However, Korean children's news shows were mainly on domestic news events, especially those relevant to children. There were some international news topics, which was to instill patriotism in children viewers.

As stated above, the differenc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children's news shows of the two countries were examined. Through this, I hope this study serves as an opportunity to shed a new light on the problems of children's news shows in Korea, and contribute in producing children's news shows adequate for the domestic situation as well as children's point of view.

<KBS 어린이 뉴스탐험>-275회 (방송일 : 2007.3.26)

○이광용 : 안녕하세요, 어린이 뉴스탐험 이광용입니다.

○이정민 :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이광용 : 벌써 3월의 마지막 주예요.

○이정민 : 네.

○이광용 : 그런데 요즘에 여기저기 사람들 하품하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추운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이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춘곤증 때문입니다.

○이정민 :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춘곤증이 오면 예이 올해도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올해는 좀 적극적으로 이겨보는 건 어떨까요? 춘곤증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일단 하루에 7~8시간정도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좋고요, 잠곡밥, 채소, 과일, 특히나 봄에 나오는 싱싱한 봄나물 있죠?

○이광용 : 예.

○이정민 : 그걸 많이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광용 : 또 있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좋다고 하고요,

○이정민 : 네.

○이광용 : 가벼운 운동이나 스트레칭도 평소에 자주 하는 것도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나른한 기운 다 떨치고요,

○이정민 : 네.

○이광용 : 오늘 어린이 뉴스탐험과 함께 해 보십시오. 첫 순서 시작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뉴스를 한 눈에 살펴보는

○이광용 이정민 : 뉴스가 보여요!

● 뉴스가 보여요 - 중국 역사 교과서 왜곡 심각

○이광용 : 동북공정으로 대표되는 중국의 역사왜곡문제, 하루 이틀 일이 아닌데요, 이제는 중국의 역사 교과서에까지 그 왜곡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료화면)

해설 이광용 : 동북아역사재단이 최근 중국의 역사교과서에 한국관련 기술을 분석한 결과 모든 교과서가 고조선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기원전 2~3세기 고조선영역에 여러 종족이 흩어져 살고 있었고, 뒤이어 중국 연나라 사람인 위만에 의해 위만조선이 건국되었다는 식으로 서술되고 있었습니다.

또 고구려, 백제, 신라로 대표되는 우리 삼국시대를 신라, 백제, 가야의 삼국이라고 규정하고 고구려는 중국의 소수 지방정권이라고 주장하는 등 그 왜곡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뿐만 아니라 일본 학계에서조차 폐기된 4~5세기 가야지역이 일본의 지배아래 있었다는 임나일본부설도 고스란히 실려 있었습니다.

이 같은 역사교과서 왜곡이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교과서가 일반 국민의 역사 상식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우리의 고대사를 왜곡하고 고구려사를 중국역사로 편입시켜 국민들에게 고구려를 자국의 나라로 인식하게 하려 하는 중국의 검은 속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일수록 우리 어린이 친구들의 우리 역사를 제대로 알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자랑스런 전통문화를 사랑하고 아끼는 자세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 한반도가 더워지고 있다

○이광용 지난 겨울 봄처럼 따뜻한 이상고온 현상이 자주 발생됐는데요, 이렇게 기온이 계속 올라가서 앞으로 한 100년 후에는 우리나라가 동남아같은 아열대기후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자료화면)

해설 이광용 : 지난 겨울은 기상관측 이후 100여년 만에 가장 따뜻했다고 하는데, 이같은 이상 고온 탓에 열대지역에서나 서식하는 해충의 등장으로 소나무가 죽어가고, 미역을 캐려면 수온이 낮은 수심

20미터이하로 내려가야 하는 등 우리 생태계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40년간 해수면도가 0.9도 높아지는 등 점차 높아지는 해수온도 때문에 30년 내에 최대풍속 70미터가 넘는 슈퍼태풍이 닥쳐올 수 있다는 예측까지 나왔습니다. 지난 2000년 이후 급격한 기후변화로 거의 모든 기상기록이 새로 작성되고 있어 재난방지분야뿐 아니라 산업계 전반에 대한 대책마련도 시급한 실정인데요, 이 같은 급격한 기온상승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는 온실가스 등 이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자연과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환경오염 줄이기에 앞장서야겠습니다. 어린이 친구들도 음식 남기지 않기,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기, 절전하기 등과 같은 자연보호실천 잊지 말아야겠죠.

● **네티즌 감동시킨 목도리녀**

○**이광용** : 최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던 목도리녀, 김지은씨의 가슴 따뜻한 선행,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전했습니다. 부전여전이라고 김씨의 아버지께서도 17년 동안이나 혼자 사는 노인을 돌봐오셨다고 합니다.

(자료화면)

해설 이광용 :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 3일, 거동이 불편한 노숙자 노인에게 막걸리와 빵을 사다 주고 자신이 하고 있던 목도리를 돌려준 선행의 주인공은 바로 홍익대 4학년 김지은씨입니다. 뿐만 아니라 김지은씨는 지난 4년간 고아원을 찾아 어린이들을 돌보는 등의 봉사를 해 왔다고 하는데요, 부전여전이라고 김지은씨의 아버지 김민택씨 역시 17년 동안 혼자 사는 노인을 보살펴 왔다고 합니다. 짬 날 때마다 당뇨로 한 쪽 다리를 잃은 장순희 할머니를 찾아 손발이 돼주고, 17년간 한결같이 할머니의 끼니를 챙겨주는 등 김민택씨는 할머니에게 친아들 이상의 존재데요, 김민택씨는 얼마전 사회복지사 자격증까지 딴 데 이어 은퇴후엔 어려운 노인들을 모시고 사는 게 꿈이라고 합니다. 요즘 어린이들 가운데는 봉사활동 점수를 위해 봉사를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앞으로는 단순히 점수를 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봉사를 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이정민** : 요 몇 주간 어린이들 뿐만 아니라 전국민을 놀라게 했던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바로 어린이 유괴관련 뉴스인데요, 오늘 뉴스 Q&A시간에는 어린이 유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뉴스 Q&A 이것이 궁금하다**

해설 이정민 : 얼마 전 한 사건으로 인해 전국민이 슬픔에 잠겼습니다.

(뉴스자료)

남자아나운서1 : 최근 어린이 유괴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남자아나운서2 : 초등학생 2명을 납치 유괴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자아나운서 : 제주에서 열 살 여자 어린이가 실종됐습니다.

해설 이정민 : 최근 어린이 유괴 실종사건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04년 16건이던 어린이 유괴 사건이 2005년 13건으로 줄다가 지난 해 18건으로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유괴 뿐만 아니라 어린이 실종 사건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고가 유치원, 초등학교 입학 초기인 3월에서 5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일어난다고 합니다. 새학기를 맞아 즐거워야 할 등하교길, 이러한 무서운 사건들 때문에 어린이 친구들의 발걸음이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부모님들도 불안한 마음에 학교를 찾는 일이 많아졌는데요,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3년간 발생한 47건중 45명의 어린이는 아무 탈없이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아저씨들이 범인을 찾는 확률도 높아서 99%의 범인들이 곧바로 잡힌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우와 같이 어린이 유괴사건은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Q&A시간에는 어린이들을 꼼꼼한 유괴로부터 지키는 방법과 그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정민** :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 한국복지재단 실종아동전문기관의 박은숙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광용** : 안녕하세요.

○**한국복지재단 실종아동전문기관 박은숙** : 안녕하세요.

○**이광용** : 선생님, 최근에 인천에서, 제주에서 계속해서 어린이 실종사건, 유괴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특히나 신학기인 3월에서 5월 사이에 유괴사건이 많이 발생한다는데 정말인가요?

○**한국복지재단 실종아동전문기관 박은숙** : 네, 그렇습니다. 조사통계를 보면 35%가 이 기간중에 발생을 하는데요, 신학을 하는 기간이고 또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실종사건들이 좀 많이 발생

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용 : 네.

○이정민 : 네, 다른 것도 아니고 어린이 유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린이들의 궁금증 먼저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여자어린이1 : 어떤 사람을 조심해야 하나요?

남자어린이2 : 유괴범을 알아보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이정민 : 네, 어린이들의 첫 번째 질문, 과연 유괴범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이겁니다. 저도 정말 궁금한데요,

○이광용 : 얼굴에 써붙이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정민 : 그렇죠. 영화나, 흔히 생각할 때는 얼굴이 좀 험상궂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만 하는데 어떤가요?

○한국복지재단 실종아동전문기관 박은숙 : 유괴범을 알아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아동들한테 실형을 해 봤을 때 험상궂게 생긴 사진과 아주 잘 생긴 사진을 보여줬을 때 누가 유괴범같냐 라고 질문했을 때 다 험상궂게 생긴 사람들을 고르거든요.

○이광용 이정민 : 네.

○한국복지재단 실종아동전문기관 박은숙 : 하지만 실질적으로 유괴범의 경우는 잘 생긴 사람일 수도 있고, 또는 예쁘게 생긴 여자분 일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모로 유괴범을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광용 :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거 점점 어려워지는데요,

○이정민 : 그렇죠.

○이광용 : 어떻게 주의를 기울여야 될까요?

○한국복지재단 실종아동전문기관 박은숙 : **(차트설명 - 이런 사람 조심하세요!)**네, 우선은 제가 차트를 준비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괴범들의 접근방법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선 을 과자를 사 주거나 돈을 주면서 같이 가자라고 유인하는 낯선 사람들을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광용 : 네.

○한국복지재단 실종아동전문기관 박은숙 : 그리고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찾다고 거짓말 또는 속임수를 쓰면서 같이 가자라고 유인하는 사람이라든가, 또는 길을 물어면서 같이 가자고, 또는 차에 같이 타자라고 제안하거나, 애완동물을, 아이들이 좋아하는 강아지라든가 고양이를 보여 주면서 저 차안에 더 많이 있으니까 같이 가보지 않을래라고 유인하거나 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컴퓨터 게임, 재밌는 게임이 있으니 같이 가서 해 보지 않을래 라고 하면서 유인하는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이광용 이정민 : 예.

○이정민 : 물론 요즘 어린이들이 그렇게 어리숙하진 않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한다면 정말 혹 해가지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광용 : 그렇죠.

○한국복지재단 실종아동전문기관 박은숙 :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유괴범들은 아주 친절하게 접근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경계심을 무너뜨립니다.

○이정민 : 네, 일단 모르는 사람이라면 정말 경계를 하는 거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광용 : 아무리 친절하더라도 일단 경계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의 궁금증 계속해서 들어봅니다.

(자료화면)

남자어린이3 : 만약 나쁜 사람이 다가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자어린이4 : 유괴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정민 : 낯선 사람이 말을 걸어오거나 또 수상한 행동을 한다 이럴 때 어린이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유괴범이 나타나면 이렇게 대처하자>

- 길을 물어며 같이 가자고 할 경우-

해설 이정민 : 낯선 사람이 다가와 길을 물으며 함께 가달라고 하는 경우,

유괴범 : 꼬마야, 아저씨가 길 좀 물을게, 여기 은행 어딴어?

해설 이정민 : 장소를 모를 경우에는 다른 어른께 물어보라고 친절히 대답을 하구요, 장소를 알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설명만 해 주고 절대 같이 가지는 말아야 합니다.

- 부모님께 같이 가자고 할 때

해설 이정민 : 낯선 사람이 나타나서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신다거나 혹은 임원하셨다며 함께 가기를 요청했을 때는

유괴범 : 네 아버지가 그러하는데 너 빨리 데리고 오래.

여자어린이5 : 엄마한테 전화 한 번 해 보고요.

해설 이정민 : 일단 부모님께 전화해 본다고 대답한 후 집에 확인전화를 합니다.

- 낯선 사람이 차를 태워준다고 할 때

해설 이정민 : 만약 낯선 어른이 집까지 혹은 학교, 학원까지 태워다 준다면 차를 태우려고 한다면,

유괴범 : 꼬마야 어디 가니?

여자어린이6 : 집에 가요.

유괴범 : 집 어딘데?

여자어린이6 : 저쪽이요.

유괴범 : 아저씨도 저기 가니까 데려다 줄게 타, 빨리 타.

해설 이정민 : 걸어가겠다고 의사를 밝히고 절대 차를 타서는 안됩니다.

- 차에 억지로 태우려고 할 때

해설 이정민 : 만약 억지로 차에 태우려고 한다면 크게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이광용 : 네, 몇 가지 경우를 살펴봤는데요, 사실 저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리란 법이 없습니다.

○이정민 : 그렇죠.

○이광용 : 그래서 더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될 텐데, 어떤 경우에도 따라가면 안 되겠죠?

○한국복지재단 실종아동전문기관 박은숙 : 네, 그렇습니다. 낯선 사람의 경우는 어떤 경우라도 따라가면 안 될 것 같구요, 혹시 아는 사람의 경우라도 부모님한테 말하는 습관을 꼭 들여야겠습니다.

○이정민 : 지금 누가 와서 어디 가자 이럴 때요?

○한국복지재단 실종아동전문기관 박은숙 : 예, 같이 가자고 할 때는요 그런 습관을 좀 들여야 할 것 같구요, 그렇지만 혹시 어른들이 강제로 데리고 갈 때는 강하게 저항을 하고 큰소리로 주변의 어른들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 소리치는 것은 생명에 위협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광용 : 참, 들으면 들을수록 어려운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정민 :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어린이들의 질문 알아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남자어린이7 : 만약 유괴를 당하면 우리가 어른을 이길 수 없으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자어린이8 : 유괴당하면 무조건 가만히 있어야 하나요?

○이광용 : 만약 유괴를 당했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될 일에 대한 가정인데요,

○이정민 : 그렇죠.

○이광용 : 그래도 계속해서 유괴사건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두면 물론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국복지재단 실종아동전문기관 박은숙 : (그림설명 - 만약에 유괴를 당했을 땐...) 예, 삽화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유괴를 당했을 때는, 유괴범과 같이 있을 때는 울음을 참고 무서워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민 : 예.

○한국복지재단 실종아동전문기관 박은숙 : 침착하게 대처를 해야 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고개를 숙이고 유괴범의 얼굴을 자주 보거나 하는 것들은 가급적이면 삼가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정민 : 그렇죠, 생명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한국복지재단 실종아동전문기관 박은숙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밥을 주면 먹기 싫더라도 꼭 챙겨먹도록 해야 할 것 같구요, 그 다음 묻는 말에 잘 대답하고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유괴범의 감정을 최대한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광용 : 네, 순식간에 유괴범이 안 좋은 마음을 품으면 지난 11일에 인천에서 발생했던 가슴아픈 사건과 같은 그런 경우가 또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감정을 건드리지 않는 쪽으로 하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료화면)

학부모1 : 아이들 등하교시때 24시간 붙어있을 수도 없고, 요즘은 유괴사건들도 많은데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될지 참 걱정이거든요. 그 교육에 대해서 많이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부모2 : 평소에 아이들에게 낯선 사람을 만나면 따라가지 말라고 교육을 시키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될지 가르쳐주세요.

○이광용 : 네, 이번엔 어머니들의 궁금증이었습니다. 유괴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준비해야 할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국복지재단 실종아동전문기관 박은숙 : 예, 우선 가정에서 유괴 교육을 좀 지속적으로 시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유괴상황들을 상황별로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낯선 사람이 같이 가자고 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아이들한테 설명하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혹시 또 외출시에는 아이를 집안에 혼자 두거나 또는 차안에 혼자 두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집에 아이가 혼자 있을 때는 아무한테나 문을 열어주지 않도록 사전에 또 교육을 하셔야 하구요, 그 다음에 6개월 단위로 사진을 찍어두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실종됐을 때는 사진이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쓰여지기 때문에 6개월 단위로 사진을 찍어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구요, 다음에 실종예방용품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정민 : 네.

○이광용 :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한국복지재단 실종아동전문기관 박은숙 : 이름표도 있고, 목걸이, 팔찌는 아주 일반적인 것들이고,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제품이라든가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되 아이들의 인식표를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이름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도록 못 안쪽이라든가 가방 안쪽에 적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유괴범의 경우 아이의 이름을 친근하게 부르면서 접근을 하게 되면 아이들은 아까 말씀드린 경계심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광용 : 쉽게 따라갈 수가 있죠.

○한국복지재단 실종아동전문기관 박은숙 : 그래서 인식표를 몸 안쪽에 적어주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러한 사항들을 항상 가정에서 유념하시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교육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광용 : 예, 만약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꼭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정민 : 네, 어린이들, 또 부모님의 힘만으로는 유괴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유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료화면)

해설 이정민 : 어린이들을 무서운 범죄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학교 주변이나 놀이터 등에 CCTV를 늘리는 것입니다. CCTV는 범죄예방효과도 크고, 수사에도 결정적인 단서가 되죠. 아이들에 대한 학교와 가정의 지속적인 교육도 필요합니다. 형제가 적은 요즘 아이들은 혼자 다닐 때가 많기 때문에 낯선 사람이 접근할 때 대처하는 방법을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이러한 예방교육 차원에서 한국복지재단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는 어린이 실종유괴 방지를 위한 인형극을 공연하

는데요, ‘빨간모자 꼭꼭이’는 빨간 두건을 쓴 어린이가 외출에서 돌아오다가 늑대를 만나는 동화에 유괴, 실종이라는 주제를 입혀 만들어진 인형극입니다.

인형 : 친구들, 내가 저 아줌마 따라서 놀이동산에 가도 될까? 안될까?

아이들 : 안돼요!

해설 이정민 : 엄마 심부름을 갔다가 나쁜 늑대에게 유괴되고 실종된 상황들을 어떻게 대처하여 또 안전하게 가정으로 돌아가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한국복지재단 박정인 : 저희가 실종유괴예방교육의 중요한 포인트가 본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스스로 꼭 잘 기억하고, 부모님과 항상 꼭 같이 다니라는 의미에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주인공 이름을 같은 의미로 지었습니다.

해설 이정민 : 이러한 아이들의 예방교육도 필요하지만 시민들의 관심도 중요합니다. 미국에서는 어린이 유괴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전국에 있는 고속도로, 역, 도심광장 등 전광판과 인터넷, 방송 등에서 실종된 어린이의 인상착의, 나이, 성명 등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사건 초기의 제보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만약 유괴사건이 발생하면 빠르게 신고하고, 어린이가 위험에 처한 것처럼 보이면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시민정신도 필요합니다. 가정과 학교, 시민사회가 손을 맞잡아야 우리 어린이들의 유괴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광용 : 어린이 유괴 사건 정말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힘없고 순수한 어린이들을 상대로 왜 이런 일이 자주 반복해서 발생하는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정민 : 예, 그렇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미래의 희망이고 추억입니다. 어떠한 이유라도 범죄 대상으로 어린이를 삼아서는 안 될 텐데요, 이 일은 가정을 파괴하는 일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희망을 깨뜨리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끝으로 선생님께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국복지재단 실종아동전문기관 박은숙 : 어린이들에게 한 말씀 드리면 유괴나 실종으로 인해서 부모님이나 가족과 헤어지는 일은 아주 슬프고 무서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나 또는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런 예방교육들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을 숙지하셔서 유괴와 같은 어려운 문제들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정민 :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박은숙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광용 : 고맙습니다.

○한국복지재단 실종아동전문기관 박은숙 : 감사합니다.

○이광용 : 올 해 우리나라에 가장 큰 국가적 행사가 있다면 바로 12월에 있을 대통령선거일텐데요, 그런데 어린이 친구들도 어른들과 똑같은 절차로 선거를 치른다고 합니다. 바로 한 학기동안 학교를 이끌어 갈 임원선거가 한창 치러지고 있는데요, 그 현장속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 뉴스탐험 현장 속으로

<화면 - 서울아현초등학교>

해설 이광용 : 이곳은 서울의 아현초등학교입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 집으로 돌아간 방과 후에 빈 교실에 남은 어린이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알록달록한 색지를 오리고 또 붙이고, 어린이 친구들 지금 뭐하는 거죠?

유민지어린이 : 저요, 회장 선거 때 쓸 피켓 만들고 있어요.

해설 이광용 : 곧 있을 전교어린이 임원선거를 앞두고 선거 준비를 하고 있는 어린이 친구들, 이렇게 피켓에서 포스터까지 스스로 다 만든다고 합니다. 포스터와 피켓을 만들 때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만드는 걸까요?

유의정어린이 : 사람들 시선을 확 끌면서 예쁘게 꾸미는 그런 것에 중점을 두어서 만들었어요.

김태영어린이 : 형광색을 써가지고 사람들이 잘 보이도록 하는 것,

유민지어린이 : 그림도 되도록 웃기게 그려서 인상을 깊게 남기게 그리는 게 제 비법인데요.

해설 이광용 : 짜잔, 드디어 피켓 완성입니다. 각 어린이 친구들의 개성이 듬뿍 담겨있을 뿐 아니라 꼭 뽑아달라는 확실한 메시지까지, 이쯤이면 꼭 뽑아줘야만 할 것 같네요. 멋지게 만든 피켓을 가지고 학교 앞 등갓길에서 유세를 펼치는 어린이 선거유세단, 매서운 꽃샘추위에도 어린이 친구들의 열정이 정말 대단하네요.

어린이유세단1 :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기호4번 뽑아주세요.

어린이유세단2 : 기호 8번, 기호 8번.

해설 이광용 : 목청이 터져라 친구들에게 한 표를 호소하는 어린이 선거 유세단, 그 열기 만큼은 어른들의 선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믿을 것은 큰 목청밖에 없다, 무조건 큰 소리로 한 표를 호소하기도 하고 또 특이한 복장으로 친구들의 눈길을 끌어보려는 노력까지.

정금희어린이 : 특이하게 입어야지 다른 아이보다 표를 많이 얻을 수 있으니까...

해설 이광용 : 하지만 특이한 복장과 험란한 피켓만으로는 많은 친구들의 표를 얻기가 어렵겠죠.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친구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연설이기 때문입니다.

< 화면 - 웅변학원 >

PD : 여기 어떻게 오게 됐어요?

정해창어린이 : 반장선거를 앞두고요 자신감을 가지러 왔어요.

웅변학원선생님 : 많은 친구들로 하여금 나를 좀 찍어줄 수 있게,

해설 이광용 : 학기 초엔 이렇게 다른 친구들에게 효과적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한 어린이들로 웅변학원이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합니다.

웅변학원선생님 : 이렇게 막 연습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제스처도 하고 이러면서 친구들 앞에서도 떨지 않고 자신있게 이야기 하는 거죠.

웅변학원선생님 : 시작.

김선영어린이 :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김선영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를 회장을 뽑아주신다면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여자어린이1 : 저를 회장을 선출하여 주신다면 이만한 그릇이 아니라 이따만한 그릇이 되어서 우리 학교에서 가장 멋진 반으로 만들겠습니다.

해설 이광용 : 우리 어린이가 친구들 정말 잘하네요. 실전에서 잘 할 수 있겠죠?

정해창어린이 : 지금처럼 자신있게 친구들 앞에서 말할 수 있다면 부회장이 꼭 될 것 같아요.

< 화면 - 서울아현초등학교 >

해설 이광용 : 다시 선거유세현장, 유세단의 유세를 유심히 살피는 이 친구는 바로 선거과정을 총 책임지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라고 하는데요,

PD : 우리 친구 지금 뭐하는 거예요?

남자어린이2 : 지금 여기 선거 운동하는데요, 줄을 안 맞추는 아이들을 골라내는 거예요.

해설 이광용 : 그럼 선거관리위원회 친구들과 함께 후보자로서 지켜야 할 올바른 선거자세에 대해 알아보까요?

남자어린이3 : (과대공약금지)여러분, 제가 전교어린이회장이 된다면 쉬는 시간을 2시간으로 늘리고 공부시간은 10분으로 줄이겠습니다.

해설 이광용 : 실현 불가능한 과대공약을 해서는 안됩니다.

남자어린이3 : (상대후보 비방금지) 저기 있는 기호 10번 노회경을 절대로 뽑지 마세요. 친구를 때리지 않나, 놀리지 않나, 게다가 침을 뱉기까지 합니다.

해설 이광용 : 상대방 후보를 비방해서도 안되겠죠.

남자어린이3 : (뇌물금지) (물건을 나눠주면서) 기호 8번! 기호 8번!

해설 이광용 : 또 물품이나 신기한 물건으로 친구들의 환심을 사려 해도 안 됩니다. 이제 본격적인 선거를 앞두고 마지막 방송유세에 들어간 후보들, 다들 많은 준비를 해 온 것 같은데요 선거를 앞둔 소감은 어떨까요?

박유진어린이 : 떨리죠. 진짜 많이 떨리죠.

해설 이광용 : 이 마지막 방송에 선거의 승패가 갈린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텐데요, 이제 후보들의 공약을 한 번 들어볼까요?

후보어린이1 : 보통 약이라면 쓴 맛을 제일 먼저 떠올리지만 약이 쓰다고 안 먹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약방의 감초와 같이 여러분의 감초가 되겠습니다.

후보어린이2 : 여러분 이름이 적히면 반드시 죽는다는 데tm노트를 아시지요? 저의 실천노트도 그와 같

습니다. 이 노트에 적는 것은 반드시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해설 이광용 : 마지막 방송유세에서인지 교실의 어린이들도 유심히 후보들의 공약을 듣는데요, 그런데 이 친구는 뭔가를 적고 있네요.

PD : 친구는 뭐 적고 있어요?

여자어린이4 : 후보자들이 너무 많아서 후보자들마다 특징을 적고 있어요.

해설 이광용 : 이렇게 일일이 후보자들의 공약을 메모하면 투표할 때 많은 도움이 되겠군요. 이제 유세가 다 끝나고 투표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어른들 선거할 때나 보던 기표소가 아닌가요? 아현초등학교는 기표소 뿐 아니라, 용지, 투표함, 그리고 선거절차까지 어른들의 선거와 똑같이 진행한다고 합니다.

최사른어린이 : 우리 학교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친구.

이용환어린이 : 재밌는 사람 뽑아가지고요 학교가 재밌어졌으면 좋겠어요.

최진희어린이 : 공약을 말로만 하지 않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이요.

해설 이광용 : 그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후보에게 소중한 한 표를 찍고 잘 접어서 투표함에 넣으면 끝인데요, 요즘엔 이렇게 종이도 아닌 인터넷으로 투표하는 학교도 있다고 합니다.

< 화면 - 서울중앙초등학교 >

해설 이광용 : 바로 선거현장이 첨단화된 서울중앙초등학교인데요, 중앙초등학교의 1인당 투표시간은 1분정도밖에 안 걸린다고 합니다. 편리해서 더 좋을 것 같은 인터넷 투표,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김미혜선생님 : 인터넷상에서 전자투표를 하게 되면 그 사진과 공약과 이름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자기가 선택하고자 하는 후보를 정확하게 찍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해설 이광용 : 또 실시간으로 바로 바로 득표현황을 확인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정말 편리하군요.

< 화면 - 서울아현초등학교 >

해설 이광용 : 이제 선거가 모두 끝나고 각 교실에서 투표함이 수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개표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임원후보들, 이제 결과만을 남겨두고 있는 심정은 어떨까요?

유민지어린이 : 떨어질 수도 있고 당선될 수도 있지만 친구들이랑 피켓도 만들어보고 좋은 경험 했으니까요.

주혜진어린이 : 부담감 많을 줄 알았는데 막상 해 보니까 재밌고, 친구들한테 너무 고마워요.

해설 이광용 : 개표는 일일이 각 후보의 용지대로 정리해 그 수를 세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과연 아현초등학교 2007년 1학기 전교어린이회장은 누가 될까요?

선생님 : 전교어린이회 전교회장은 182표를 득표한 김진희!

해설 이광용 : 예, 약방의 감초와 같은 임원이 되겠다고 공약한 기호 4번 김진희어린이가 당선됐습니다. 정말 축하합니다.

김진희어린이 : 공약대로 의견을 존중도 해 주고 가장 즐겁고 재밌는 아현초등학교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해설 이광용 : 공정한 선거, 깨끗한 한 표, 민주사회의 초석을 닦고 있는 뜨거운 초등학교 선거현장, 어린이 친구들은 이미 민주주의의 당당한 일원이었습니다.

○이정민 : 네,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스스로 선거위원회도 조직하고 선거도우미 활동도 하고 정말 어른들 선거와 다를 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광용 : 네, 그리고 학생들 등교할 때 열심히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피켓 들고 응원도 하고, 선전도 하고, 이런 모습은 정말 어른들 선거할 때 모습 그 이상으로 열정적입니다.

○이정민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들이 스스로 상대를 비방하지 않겠다, 또 지킬 수 있는 공약만 내세우겠다, 이런 모습들이 어린 시절부터 민주주의를 배워가는 것이 아닌가, 또 실천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광용 : 네,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제대로 된 민주주의 제도를 연습을 하면 앞으로 우리 사회에도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정민 : 네.

○이광용 : 오늘 어린이 뉴스탐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NHK 주간 어린이 뉴스> (방송일 2009.6.20)

6월 20일 주간 어린이뉴스 시간입니다.

전 진행진 모두가 : 안녕하세요?

아빠역 : 오늘은 도쿄는 날씨가 좋았지요.

아빠역 : 네 하지만 좀 장마 때문에 모두 집에 있었기 때문에 무엇하고 놀았어요?

히토미 : 전, 한자대결이라고 해서 무슨 변해서 30초에 몇 개 한자를 만들 수 있느냐?

유우군 : 히토미 잘 하죠.

아빠역 : 잘 하죠.

엄마역 : 아빠가 가장 약하죠.

아빠역 : 직업상 사실은 잘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말인데도.

핀토군 : 네, 핀토입니다. 나는 언어의 세계에서 왔기 때문에 한자의 세계는 강해요. 한꺼번에 변환 시키기 때문에.

아빠역 : 아! 그거 좀 사기 아니에요?

히토미 : 아 그런거 보니 강한 것 같아요.

핀토군 : 오늘 특집은 생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생물을 보호할 수 있는지 프로그램 후반에 소개할게요.

핀토군 : 그러면 아버지의 코너로 갑시다. 아빠! 잘 부탁드립니다.

아빠역 : 네

꼬마 3명 : 가르쳐 줘요 아빠!

아빠역 : 알았어요.

- <이번 주 대 질문> 코너 -어떻게 해서 체포되었나?(질문자 :가나가와현 초등6)

핀토군 : 14일 일요일 국가의 관공서인 후생노동성 국장을 했던 무라키야츠코 용의자가 체포되었습니다. 무라키 용의자는 부하에게 가짜 서류를 만들게끔 명령 했다고 해서 어째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아버지가 설명할 것입니다.

<아빠설명 부분 모형으로 설명>

네, 후생노동성에 무라키 전 국장이 체포되었습니다. 국장이라는 것은 국가관공서 중에서도 톱 계층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체포되었기 때문에 아주 큰 충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라키 전 국장은 가짜증명서를 만들었다는 의혹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그것은 도대체 어떤 것인지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를 오늘 모형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국가의 관공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후생노동성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하면 굉장히 넓은 범위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일을 하거나 노인들에 연금 신청인플루엔자라든가 암 같은 병에 관한 의료에 관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장애가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무라키 전 국장은 사건이 있기 5년 전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부서에 있었습니다. 그 부서에서 무엇을 했냐하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 단체 사람들이 장애인단체라고 인정 해 주세요! 그 증명서를 내 주세요! 라고 말했을 때에 정말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제대로 체크를 해서 괜찮다. 라고 할 때는 증명서를 장애인단체에 내준다. 이런 것도 업무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으면 뭐가 좋으냐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단체가 자신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라든가 도와주세요. 이런 일을 하는 그런 회보 같은 것을 안내하거나 합니다. 그것은 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편으로 보낸다는 것은 돈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보통 120엔 정도가 보내는 데에 듭니다.

그러나 이 증명서가 있으면 8엔! 가장 싼 경우에는 8엔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싸게 되므로 부담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많이 보낼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백산회』라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이 단체는 사실은 장애자를 위한 일을 하고 있는 데가 아닙니다. 여기에 구라사와구니오 용의자도 역시 체포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면 앞서와 같은 방식으로 인정해 주세요! 라고 후생노동성 쪽으로 갔습니다. 실제로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무라키 전 국장은 인정해 주

세요! 라는 것에 대하여 인정해 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구라사와 용의자는 자기가 친한 국회의 원에게 인정하도록 말 해 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국회의원이 전화를 걸어서 후생노동성 무라키 전 국장의 앞전에 근무했던 상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정해주세요. 라고 원래 앞전의 상사가 무라키 전 국장에게 증명서를 내도록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무라키 전 국장이 이번에는 부하인 계장에게 내어주라. 라고 말해져서 그래도 이것은 실제로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처럼 내지를 못 하죠. 그래서 가짜증명서를 내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꼬마들 : 와!

아빠역 : 그러니까 이 계장도 체포 되었습니다. 백산회는 이 증명서를 사용해서 무엇을 했느냐면 우편물을 비슷하게 이제 싸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냈던 것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전기제품이나, 통신 판매 그런 전단지를 보내고 있었다고 하네요. 아 그래서 사기 친 돈이 무려 20억 엔이나 된다고 말해지고 있습니다. 20억 엔이라고 사기를 쳤는데 그것을 도와주게 되어 버린 거죠. 하지만 어째서 국회의 원에게 말을 들으면 이렇게 내 줬는가 하면 사실은 법률을 만드는 방법에 관계가 있습니다. 법률이라는 것은 모두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국회에서 만듭니다. 국회에는 법률안이 많이 올라옵니다. 예를 들어서 일부러 많게는 국가의 관공서에서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법률의 안이라는 것은 작년에 300개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근거로 해서 중의원이나 참의원에서 이야기를 해서 찬성이 많은 경우에는 법률로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안들이 법률이 되는 것은 300개중에 작년에 경우에는 네 개 중에 하나 많은 것이 법률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라키 전 국장은 그 당시 자기들이 법률 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통과하기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말 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사카 지방검찰청에 특수부조사에서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라키 전 국장은 이 단체도 이런 가짜증명서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무라키 전 국장이 몰랐던 것인지 또 원래에 있던 부하하고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확실히 해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역시 국가에 관공서에는 국회의원이든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기를 도와준다는 일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핀토군 : 음! 수사를 제대로 지켜보고 싶군요. 자 그러면 이번 주 일주일에 뉴스를 돌이켜 봅시다.

전 진행진 모두가 : 자 보여 주세요.

<세상 속 정리해본 1주일간> 코너 - 핀토군이 설명

(15일 월요일) 수십만 명이 항의

이란이라는 나라에서 지난 주 대통령 선거가 치러져서, 지금 아흐마데네자드 대통령이 3분의 2에 가까운 표를 획득해서 재선되었습니다. 선거에 진 무사비씨는 젊은이랑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무사비씨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차이가 날 리가 없다. 선거에서 많은 사기가 있었다고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15일 월요일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선거를 다시 하라고 요구를 해서 수도 테헤란에서 행진을 했습니다. 이 행진을 향해서 대통령 측에 병사가 총을 쏘았기 때문에 7명이 사망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태가 세계에 전해지지 않도록 다음날부터 외국인 기자들의 취재를 금지 했습니다. 이란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세계 국가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16일 화요일) 빨리 공사해요

큰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공립의 초·중학교 학교건물 등이 무너지지 않는지를 국가가 전국에 12만 개소를 조사해서 16일 화요일 날에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전체 3분의 1인 41,000개소가 지진에 대비하는 공사를 하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 중에 7,300개소는 진도6강 이상이 될 경우 쓰러지거나, 무너지거나 하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빨리 공사를 해주기를 바라네요.

(17일 수요일)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지금부터 19년 전 도치기현 아시카가市에서 네 살 아이가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에서 수가야 토시가즈씨가 체포되어서 무기징역이 되었습니다.

수가야씨는 17년간 형무소에 들어가 있었지만 다시 한번 조사했더니 범인이 아닌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번 달 초 형무소에서 나와서 자유로운 몸으로 되었습니다. 17일 수요일 수가야씨는 자신을 체포한 도치기 현 경찰본부를 찾아갔습니다.

경찰본부장 인터뷰: 긴 세월 정말 괴로운 경험을 시켰던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수가야씨: (경찰이)머리를 숙여서 감동했습니다.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수가야씨는 그 후에 살해당한 여자 아이가 발견된 장소에 가서 손을 모아서 불쌍하다! 진짜 범인을 빨리 잡았으면 그런 말을 했습니다.

(18일 목요일) 어린 아이도 인정한다.

뇌는 죽어버렸지만 몸은 살아있다는 상태를 뇌사라고 합니다. 이런 상태인 사람으로부터 심장 같은 장기를 받고 병을 고치는 것이 장기이식입니다. 18일 목요일 종의원은 장기이식에 관한 새로운 법률안을 정했습니다.

이 안으로서는 뇌사상태가 된 경우에 가족이 좋다고 말 하면 장기를 줄 수 있습니다. 지금 법률로는 어린이의 장기이식은 인정 되어 있지 않지만 이번 법률안으로서는 인정되게 됩니다. 장기이식 법률에 대해서는 이 후에는 참의원에서도 이야기 됩니다.

이 세상 속 정리해본 1주일이었습니다.

뭐니? 뭐니? "그래!", "그래!"(코너 시작하기 전에 멘트용)

<과연 그렇군! 고개 꼬덕이는 악동들> 코너

핀토군 : 지금 지구상에 동물 중에는 그 수가 계속 줄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상태라면 없어진다. 즉 멸종할지도 모릅니다. 왜 동물이 줄고 있는 것일까 오늘은 멸종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자, 지구의 미래를 생각하는 세이버더퓨처라고 해서 어린이뉴스에서도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엄마역 : 그런데 우리들은 멸종을 어떻게 막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멸종이라는 것이 무엇지 알아요?

아빠역 : 알아요?

꼬마 3인 : 잘 몰라요.

아빠역 : 어떤 종류의 생물이 전혀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토미 : 지구로부터?

엄마역 : 네. 세계에서도 멸종 않을까 염려되는 동물은 8천 종류 이상이 있다고 합니다. 아주 큰일이죠! 멸종의 원인은 인간 때문이라고 말해지고 있습니다.

유우(장남역) : 네 그래서 내가 전멸의 우려가 있는 동물에 대해서 알아보고 왔습니다. 나가사키현 쓰시마시 남북 82km가 되는 큰 섬입니다. 섬에는 아주 신기한 동물이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기 위해서 야생생물보호센터를 찾아가 봤습니다. 여기서는 상처나 병에 걸린 야생동물을 보호해서 나아지면 야생으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쓰시마 자연보호관 미주사키씨 : 봐, 보세요.

유우(장남역) : 아 귀엽다!, 진짜?

이것이 그 신기한 동물 쓰시마야마 고양입니다. 일본에서도 이 섬 밖에 없네요. 특징은 코가 크고 귀 뒤 부분이 하얀 것이라든가 꼬리가 굵고, 다리가 짧은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 섬에는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100마리 정도까지 줄어들었다고 해요.

유우 : 미주사키씨! 쓰시마야마 고양이는 왜 줄어들었을까요?

미주사키씨 : 어느 것도 다 사람의 영향 인간 활동과 관련된 것입니다.

핀토군 : 쓰시야마 고양이가 줄어들 이유를 설명해 봅시다. 첫 번째는 개발! 인간이 산을 깎아 내려서 쓰시야마 고양이가 살 수 있는 장소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두 번째는 야생화 된 개(들개). 사람이 버린 개가 야생 개가 되어 쓰시야마 고양이를 공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멧돼지를 잡는 덫에다가 잘못 해서 걸려 버리거나, 섬 안에 들어온 다른 집 고양이로부터 병이 옮기거나 해서 숫자가 줄었다고 합니다.

유우 : 또한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교통사고입니다. 섬에서는 해년마다 자동차에 치여서 죽는 쓰시야마고양

이가 발견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장소에서도 작년 2월에 고양이가 치어서 죽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근처에 이렇게 고양이가 움츠리고 있는 것을 초등학교 여자아이가 발견했습니다. 연락을 받고 보호센터 사람이 구하러 갔습니다. 머리를 다쳐서 크게 다쳤습니다만, 헌신의 노력으로 치료를 해서 그 덕분에 점차로 건강을 회복해졌습니다. 사고로부터 일 년 반 쓰시야마 마고양이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드디어 야생으로 돌려주게 되었습니다. 저도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사육 직원 인터뷰 : 지금 “샤”소리 내고 있지요. 쓰시야마 고양이는 야생동물이기 때문에 사람이 만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유우 : 놀아주는 것은 좀 슬프니까?

사육 직원 인터뷰 : 역시 그렇죠. 약간 슬픈 생각도 좀 있지만 역시 열심히 살라고 정말 응원 해 주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야생동물은 역시 인간이 키워주는 것보다 산에서 자기가 먹이를 잡고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유우(설명장면) : 쓰시야마 고양이는 조사를 위해 발신기를 몸에 달고 놓아 주었습니다. 멸종을 막기 위해서 보호센터사람들은 매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우 : 상처가 나아져도 야생으로 살아가는 힘이 없으면 돌려주지 못하는데요. 그래서 센터는 살아 있는 먹이를 잡는 연습을 시킨다고 해요.

아빠역 : 야생 그대로 라는 것이죠.

엄마역 : 야생으로 돌려주는 것도 힘든 것이네요.

엄마역 : 그래서 멸종은 세계에서 진행되어 있고 일본에서도 멸종해 버린 동물들이 있습니다. 자! 이쪽에 멸종 동물원에 모여 봤습니다. 유우! 카메라맨 자 부탁합니다.

엄마역 : 우선, 훗카이도 있던 감모리스쿠시가모 그리고 오가사와라에 있었던 오가사와라마시꼬라든가 엔자이가 종류도 멸종 그리고 나가노현 수와모로코 일본 각지에 있었던 니혼오카미 기이로네쿠이하 모씨 오키나와에 있었던 오키나와 오오고모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니혼가와와소라는 생물은 30년 이상 보지 못하고 있어서 멸종해 버렸을지도 모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기록이 남아 있는 것만해도 40종류 이상의 동물이 멸종해 버렸습니다.

히토미 : 근데, 하지만 늑대는 무서우니까 없어지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아빠역 : 아! 그럴까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구나.

엄마역 : 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돼요. 어떤 종류 생물이 지구에서 멸종해 버리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늑대는 사슴을 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늑대가 없어져 버린 지금은 사슴이 너무 많아져서 곤란해요. 사슴이 숲의 식물을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숲이 말라 죽어요. 그렇게 되면 숲에서 사는 생물들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멸종은 자연의 균형을 이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즉 여러 가지 생물이 균형 있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생물의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아빠역 : 역시 인간도 위와 같이 다른 생물과 같이 생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시도를 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카이시가 알아보았습니다.

카이시 : 예. 갔다 왔습니다. 자, 보세요.

핀토군 : 도쿄도 아키르노시. 지금 이 숲에 많은 생물이 돌아오게 하려고 있다. 활동의 중심이 된 것이 자원봉사단체 사람들.

<숲에 잡목을 베고 있는 남자를 보면서 핀토군이 독백으로 말하는 장면>

핀토군 : 아! 그건, 잠깐 그런 일을 해선 안돼요! 자연을 파괴해선 안돼요! 나무나 풀을 잘라버리면 생물이 줄어들지 아닐까요?

남자 인터뷰 : 이렇게 해서 나무를 자르는 등 해서 물웅덩이를 만들어 주면 잠자리나 개구리 같은 것이 이런 환경을 이용하게 됩니다.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 주지 않으면 점점 황폐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다.

핀토군 : 어떻게 하면 숲을 손질하는 것이 좋은지 설명 해 보겠습니다.

옛날부터 일본은 사람이 나무를 자르거나 물을 끌어오거나 해서 밭이라든가 논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을 사토야마라고 합니다. 사토야마는 생물에게 있어서 살기 좋은 장소이고 여러 가지 생물이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농업을 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 버렸다. 또한 밭이랑 논을 갖고 있는 소유자들이 노인층이 늘어나게 되어 손질하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사람이 손질을 하지 않게 되면 논이랑 밭은 완전히 황폐해져 버린다. 그렇게 되면 물을 좋아하는 생물이 살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있던 개구리나 잠자리가 줄어 버렸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사토야마 만들기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풀을 베거나 나무를 자르거나 해서 생물이 살 수 있는 물웅덩이를 만들고 있다. 사토야마를 만드는 것으로 최근에는 멸종 우려가 있었던 생물이 돌아왔다고 해요. 이것 뭐니까?

인터뷰 : 이것은 호도케미꾸라지입니다. 아카하라이모리(도롱뇽의 일종)입니다.

핀토군 : 이것, 도코산쇼우오도 멸종 될 우려가 있던 생물이다.

자연과학 작가 인터뷰 : 숫자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농업 하는데 있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생물에게는 아주 좋은 환경이 되지요.

카이시 : 바다에서도 생물을 늘리기 위한 그런 노력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오오이타현 우사시에 있는 나가스라는 곳입니다. 이 주변에 바다에는 지금 생물을 별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핀토군(설명장면) : 하지만 옛날에는 좀 달랐다. 이 주변에서는 어업을 하기 위해서 바다 속에 돌담을 만들었다. 돌담 틈 사이에는 많은 생물이 알을 낳으러 모여 든다. 게다가 그것을 먹기 위한 생물도 모여 들어서 바닷가에는 많은 생물이 있었다. 그런데 어업을 하는 사람이 줄어서 돌담이 없어져 버렸다. 바다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버렸다.

나가사야반디자인 회원 : 저는 유치원 때부터 바닷가에서 놀았던 것 같은데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까지도 돌을 이렇게 반대로 일구면 그 밑에 여러 종류의 물고기가 있었어요. 이전에 비하면 줄어 버렸어요.

핀토군 : 생물이 사는 바다로 되돌려 놓자. 라고 해서 이 고장사람들이 다시 한번 돌담을 만들고 있다. 이 고장에서는 이 돌담을 『이시히비』라고 부르고 있다. 이 『이시히비』는 완성 된지 2년! 바다에 익숙해져서 해초 등도 달라붙게 되었다. 최근에는 생물도 많아지게 됐어요.

카이시 : 모에비(새우종류)입니다.

핀토군 : 사토야마에 대해서 사람이 손질을 해서 생물이 많이 모여드는 바다를 『사토우미』라고 하여 본 고장 사람들은 이 사토우미가 멸종이 염려가 있는 생물을 다시 불러들이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나가사야반디자인 회원 : 옛날에는 가부토가니(게)가 산란을 하러 왔었어요. 가부토가니 알아요?

카이시 : 몰라요!

나가사야반디자인 회원 : 몰라요? 그런 것들이 돌아왔으면 해요.

카이시 : 어린이들도 『이시히비』 만들기를 도와주고 있었어요. 물론 이 고장의 중학생들. 5년 전부터 돌을 계속 쌓고 있습니다. 완성까지는 앞으로 수년 걸린다고 합니다. 나도 형들에게 배워서 도와 드렸습니다.

중학생 인터뷰 : 옛날에 잡고 있었던 고기랑 앞으로는 새로운 고기가 잡혀졌으면 합니다.

카이시 : 풍요로운 사토우미를 향해서 여러분 힘내세요! (설명부분)

카이시 : 웬지, 중학생 형들이랑 같이 해서 아주 재미있었고, 고기 같은 것이 많이 있어서 너무 재미있었어요.

아빠역 : 음, 도와주고 있었죠! 중간에 손을 놓았지만,

카이시 : 아니 그건 내가 넘어질 뻔했기 때문이에요.

아빠역 : 아! 미안, 미안! 넘어질 뻔해서 그래서 그럴구나. 잘 도와줬어요.

유우군 : 멸종을 막기 위한 그런 노력은 아주 좋다고 생각했고, 이 마을의 있는 중학생들이 도와주고 있어서 아주 좋다고 생각 했어요.

히토미 : 역시 그렇게 해서 생물 같은 것을 멸종으로 몰아버린 것도 역시 아까도 말했었던 것과 같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되돌린다는가 멸종되지 않게 하는 것도 인간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해요.

아빠역 : 음! 그렇죠. 하지만 사토야마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사토우미라는 것은 아버지도 처음으로 들었고, 이러한 노력을 많이 확대하지 않으면. 사람과 자연이 같이 균형을 이룬다는 것이 이제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엄마역 : NHK에서는 이 다음 프로그램에서도 환경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자 계속하여 다음은 이쪽 코너입니다.

<이번 주 대활약 선수> 코너 - 핀토군

<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최종전 오스트레일리아와 축구 경기 장면 >

자막 글자 :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최종전!

자막 글자 : 상대는 예선그룹의 1위인 오스트레일리아

자막 글자 : 전반 40분

자막 글자 : 일본이 먼저 골인!

자막 글자 : 하지만 후반

자막 글자 : 오스트레일리아에게 2점을 빼앗겨 버린다.

자막 글자 : 일본은 몇 번 더 쏠하지만 점수에 연결되지 않는다.

자막 글자 : 2대 1로 저버렸다!

감독인터뷰 : (이제 월드컵까지) 1년 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부터 한발 한발 올라가지 않으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루하루 신중하게 시합하고 싶어요.

자막 글자 : (월드컵까지) 1년 밖에 시간이 없다.

자막 글자 : 하루하루 신중하게 시합해 나가고 싶다.

<소식들 어서 오렴> - 코너

카이시 : 자, 보라, 보라, 빌딩 계단 위. 이게 뭘까요?

유우 : 무슨 동지 같은 것 같은데?

히토미 : 별집 같지 보이지 않니?

카이시 : 동지는 동지이지만 제비집입니다. 해년마다 이 동지에 제비가 온데요.

이것을 보내 준 아라키다에스케군! 다에스케군으로부터의 질문입니다.

해년마다 오는 제비는 같은 제비일까요? 임니다.

히토미 : 그 질문에는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제비는 철새라고 해서 추운 겨울에는 남쪽에 따뜻한 나라에 가고 봄이 되면 돌아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같은 곳에 동지를 만듭니다.

유우 : 어떻게 알아요?

히토미 : 제비 발에다가 아시바라는 것을 달아서 조사한 연구자가 있었데요.

유우 : 하지만 그런데 왜 같은 장소에 돌아오는 거예요?

히토미 : 음. 한번 그곳에 살았었기 때문에 파리나 등에 같은 먹이가 있던 것이라든가 혹은 까마귀랑 고양이라든가 뱀 같은 천적이 오지 않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동지를 개조하거나 새로운 동지를 만들거나 해서 거기서 다시 새끼를 기른다고 해요.

카이시 : 그러면 다에스케군이 보고 있는 제비도 같은 제비일지도 모르겠네요.

히토미 :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엄마역 : 소식 감사합니다.

아빠역 : 자 소식 감사합니다.

엄마역 : 그러면 프로그램으로부터의 알림입니다.

아빠역 : 소식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빠역 : 오늘은 멸종위험이 있는 동물에 대해서 말했지만 지난주에는 온실효과가스를 이야기했었죠.

역시 지구에서 살기 위해서는 다른 생물들과 함께 해서 균형을 잡으면서 살아가지 않으면 안돼요.

이런 것을 어린이 주간뉴스에서도 앞으로 계속하여 전하고 싶다고 합니다.

다음 주도 봐 주세요. 그러면 안녕! 안녕!

감사의 글

18년 만에 다시 학문의 길에 들어섰을 때는 과연 내가 끝까지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앞섰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학문을 한다는 것은 나의 인내심의 한계를 또 한번 시험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순간순간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수차례 있었지만, 끊임없는 지도와 격려로 본 연구가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최낙진 지도교수님을 비롯하여 언론홍보학과의 고영철 교수님, 박경숙 교수님, 김경호 교수님, 김희정 교수님께 너무나 감사할 따름이다. 이렇게 훌륭한 은사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내 인생에 있어서 큰 기회였으며 행운이었습니다. 정말 소중한 만남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그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는 마음 속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또한 본 논문의 기초 연구 자료를 위하여 많은 도움을 주신 細見典子(호소미노리코)선생님, 岸田惠(키시다메구미)님, 김미심님, 양복신님, 이재승 원우님, 오하준 원우님에게도 고마운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본 논문이 시작단계에서부터 많은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신 윤홍철 전 제주보건청장님에게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본 논문의 과정은 하나의 산 정상을 등반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여러 번의 힘든 고비가 있었고, 그때 마다 주저 않아 버리고 싶었습니다만, 저를 끝까지 믿고 아낌없는 격려와 따뜻한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가쁜 숨을 몰아쉬며 여기까지 달려올 수가 있었습니다. 험한 산일수록 고통의 쓴 맛은 크며, 이로 인해 정복 했을 때의 기쁨은 배가 된다고 합니다. 이제야 산 정상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산하는 홀가분한 마음과 보람이 느껴집니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개인적으로는 많은 인내심을 키울 수 있었고, 인격적으로도 더욱 성숙해 진 것 같습니다.

끝으로 본 논문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도와주신 언론홍보학과의 박군방 조교님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배려해준 직장 동료들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전하면서,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